
한일관계사학회

제207회 월례발표회

일시 : 2023년 5월 13일(토) 오후 2~6시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B2 세미나실

차 례

사회 : 남상호(전 경기대학교)

제1발표	
1597년 전후 조선 조정과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의 교섭 분석	발표 : 김한신(충북대학교) 토론 : 김경태(전남대학교)
제2발표	
민생단 참변의 도화선, 송노털 사건	발표 : 장우순(성균관대학교) 토론 : 신운용(광복회)
제3발표	
마한의 ‘해양력’과 매킨더의 ‘심장지대’를 통 해 본 러일전쟁	발표 :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이종국(동국대학교)

제1발표

1597년 전후 조선 조정과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의 교섭 분석

발표 : 김한신(충북대학교)

토론 : 김경태(전남대학교)

【제1주제】

1597년 전후 조선 조정과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의 교섭 분석

김한신(충북대)

1. 머리말
2. 1596년 일본과의 교섭 결렬 이후 조선 조정의 재침 대응책
3.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의 조선 접촉
4. 맺음말

1. 머리말

몇 해 동안의 소강상태 끝에 임진전쟁은 다시 무력충돌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1596년 9월 교섭이 결렬된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결렬을 선언한 경위와 실제 이유를 알아보는 한편, 명 측에 일본의 재침을 기정사실화하여 군사지원을 요청했다. 명 측에서는 조선의 보고를 마침내 수용하여 출병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명 조정에서는 당장 조선과 함께 일본에 군사행동을 개시하기보다 조선과 일본을 중재하여 강화교섭을 재개한다는 쪽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다. 조선 조정 역시 1594년부터 군비강화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대화를 재개하여 전쟁의 발발을 막을 수 있는 선택지도 함께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한 시점에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조선 조정의 요구를 실행할 수 있는 교섭 담당자로 떠오르게 된 것이었다.

이 교섭은 정식 강화교섭이 아니라 결렬 선언 이후 상호 합의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탐색하는 후속교섭이었다. 그 때문에 교섭의 형식은 조선의 남부 최전선에서 일본군 진영과 조선군 진영 사이에 군사 사안을 조율하는 양상이었다. 표면적으로 적대국 군 지휘관끼리의 군사 행동 조율이라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이 시기 양국의 동향을 군사 분야로만 제한해서 본다면 임진전쟁과 정유재침 사이에 내밀하게 이어져 있는 정부 차원의 재침 저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어찌 됐든 재침은 일어난 것이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의문은 이 시기에 검토해야 할 史實을 간과하게 한다. 1597년을 전후하여 유키나가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섭의 담당자로서 조선 측과 정보를 주고받았고 조선 조정은 유키나가를 지렛대로 삼아 후속 교섭을 포함한 방안들로 재침을 저지하려 했다. 이 과정을 누락하고 정유재침을 이해하려 한다면 임진전쟁과의 인과관계는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이다.

재침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짧은 시기를 이해하는 관건은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존재에 있다. 물론 유키나가는 1595년 초부터 黃愼의 교섭 상대자(counterpart)로 등장하기 시작했기에, 1597년경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 측에서 인식하는 고니시 유키나가는 1596년 교섭 결렬 이전과 이후가 명확히 다르다. 결렬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남부 최전선의 조선군 진영을 매개로 유키나가 진영과 후속교섭을 논의하며 재침을 최대한 피하려 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조선 조정에서는 유키나가를 다른 적과 동일하게 적대할 수 없었다. 역설

적이지만 유키나가는 재침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상의해야 할 ‘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양측은 1596년 교섭 결렬 이후 공통의 목적을 위해 일종의 밀월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점에도 조선 조정에서 고니시 유키나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유키나가에 의심을 거듭하면서 유키나가와 그 휘하 인원 등을 조선에 유리하게 부리고자 했다. 의심과 기대가 반복되고 있었지만, 조선 조정에서 끝내 기대를 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후속교섭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시기의 조선 조정과 유키나가 진영의 교섭 내용, 그리고 그 의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주제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조선 조정에서 명과 공조하여 일본에 무력대응을 해야 한다는 대안을 고려하면서도 유키나가 진영과의 후속교섭을 통해 강화교섭을 재개하려 했다는 점, 고니시 유키나가의 측면에서는 일본군 진영 내에서 히데요시 등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선 조정과의 창구를 연결해서 일본의 군사 행동을 지연시켰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키나가가 일본을 배신하고 조선에 歸附한 것은 아니었다. 유키나가는 여전히 히데요시의 신하였고 일본의 ‘武威’를 과시하기 위해 참전한 장수였다. 다만 전쟁을 인식하는 방식이 주위의 일본 장수와 달랐고 그 점에서 행동의 차이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지점들에 유의해야 이 시기 史實들이 지닌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 시기에 대한 이해는 조선 조정에서 이순신을 무고하게 처벌한 일과 명의 유격 沈惟敬과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에 진행된 강화교섭이 허위로 드러났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개설서에서는 이순신이 誣告를 받아 해상 방어에 공백이 생겼고, 유키나가와 요시라 등이 離間하여 조선군을 부추긴 결과 조선의 칠천량패전으로 이어졌다고 했다.¹⁾ 전쟁의 全史를 다룬 글에서는 유격 심유경이 추진한 교섭과정이 명 조정에서 기만으로 파악되었고, 일본에서는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主戰論이 우세해짐에 따라 히데요시의 결정이 재침으로 기울어졌다고 했다.²⁾

히데요시의 의도에 주목하는 연구에서는 조선 왕자가 조선의 4도를 영지로 받을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왕자가 통신사와 함께 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히데요시가 조선 왕자를 제후로 삼아 조선보다 우위에 서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히데요시에게는 명과는 강화를 맺더라도 조선과는 전쟁을 계속하여 조선의 영토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했다. 조선을 집요하게 복속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³⁾

최근의 연구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교섭 결렬과 재침을 선언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의 경쟁관계를 언급하며 고니시 유키나가가 재침을 저지하기 위해 취한 태도, 유키나가의 조선 왕자 요청에 담긴 의미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⁴⁾ 그와 함께 조선에 교섭 결렬이 통지된 후 조선 조정에서 파악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화교섭이 진행될 시기 기요마사의 동향과 泗溟堂 惟政과 접견 시 문답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⁵⁾ 이 연구에서는 강화교섭의 파탄

1) 李相佰, 1962, 「土禍・黨爭과 倭亂」, 『韓國史 -近世前期篇-』, 乙酉文化社, 650~654쪽 ; 이만웅, 2012, 「조선-일본 전쟁(임진왜란·정유재란)과 군사제도의 변화」, 『한국군사사7 -조선후기I-』, 경인문화사, 166~167쪽.

2)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7, 『壬辰倭亂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210~212쪽.

3) 中野等, 2006, 『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 吉川弘文館, 292~293・301面 ; 2019, 「정유재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세 판단과 정책」, 『처음 읽는 정유재란 1597』, 푸른역사, 105~108쪽.

4) 김경태, 2014,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0~217쪽 ; 2018, 「정유재란 직전 조선의 정보수집과 재침 대응책」, 『韓日關係史研究』 59, 한일관계사학회 ; 2019, 「정유재란 직전 조선의 정보 수집과 재침 대응책」, 『처음 읽는 정유재란 1597』, 푸른역사, 63~67쪽.

이라는 사건에서 기요마사의 행동과 의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관찰했다.

위의 연구 중에서 유키나가와 요시라의 이간으로 조선군의 방어력이 교란되었고 그 결과 칠천량해전에서 패전했다는 내용은 1597년을 전후한 연대기 자료와 문집 자료 등을 비교·검토하여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유키나가가 히데요시의 신하인 것은 사실이나 히데요시의 장수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히데요시의 명령을 이행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유키나가는 강경한 조처를 주장하는 기요마사와 달리 전쟁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언행을 보였고, 조선 조정과도 대화의 창구를 유지하려 했다.

따라서 1597년을 전후한 고니시 유키나가의 對조선 교섭을 기만 혹은 이간이라고만 단정하지 않아야 하며, 조선 조정에서 이러한 유키나가 진영과 교섭에 임할 때 무엇에 주안점을 두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유키나가가 조선에 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마냥 안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유키나가를 전혀 배척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선조 이후 후대의 기록에서는 유키나가와 요시라를 교활한 ‘倭賊’ 정도로 다루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아무 비판 없이 추종한다면 역사의 실제로부터 멀어질 뿐이다. 상호간의 의심 속에서도 대화가 진행되었고, 교섭의 당사자들은 각각 적과 대화하고 있다는 내부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점들을 놓치지 않아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실에 근거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화를 주의해야 하겠지만, 수많은 인명 희생이 뒤따름에도 상호 적대하는 이들은 강경론을 내세워 전쟁을 불사했다. 정유재침 역시 전쟁의 참상을 두고 반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발한 사건이었다. 지난 5년간 반복된 것은 무의미한 살상과 대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체면과 무위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두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전쟁을 저지하기 위해 교섭을 고려했으나, 적개심에 일정한 거리를 두지 못하고 유키나가와의 협력에 실패했다. 전쟁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과정을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임진전쟁은 물론 인간의 불완전한 一面과 미숙이라고 하는 한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2. 1596년 일본과의 교섭 결렬 이후 조선 조정의 재침 대응책

1) 고니시 유키나가 측과의 교섭선 유지

1596년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교섭의 결렬과 재침을 선언했다. 그러나 즉시 조선 침략을 이행할 수는 없었다. 히데요시는 당장 1596년 겨울에 조선으로 향하겠다고 했으나 군사 편제, 보급 계획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그와 함께 재침을 단행할 경우 조선과 명이 연합하는 형세 역시 히데요시에게 난제였다.⁶⁾ 조선이 명과 합세하는 한 일본이 조선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기는 어려웠다. 히데요시는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시간과 거리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大明의 군사가 조선의 도성으로부터 5일 거리 혹은 6일 거리까지 진출하

5) 김문자, 2005, 「임진왜란기 일·명 강화교섭의 파탄에 관한 一考察 -사명당(松雲大師)·加藤清正 간의 회담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8-3, 한국학중앙연구원, 247~249쪽 ; 2012, 「임진왜란기의 강화교섭과 加藤清正 -조선왕자의 送還문제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42, 한일관계사학회, 401~407쪽.

6) 나가노 히토시中野等, 2019, 「정유재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세 판단과 정책」, 『처음 읽는 정유재란 1597』, 푸른역사, 108쪽.

면 보고하라. 나는 좌우의 근신만 거느리고 渡海하여 즉각 섬멸하고 명까지 진격할 것이다”⁷⁾라는 지침을 내려 재고의 여지를 두었다. 지침 중 히데요시 자신이 도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여기서 핵심은 명 측에서 조선에 군사지원을 결행하고 명군이 조선의 도성으로부터 5, 6일 거리 정도까지 근접하면 현장에 주둔한 일본군의 보고를 듣고 전진 위주의 전략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였다.

조선 조정에서 이러한 히데요시의 생각을 읽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조선이 명과의 동맹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한 일본이 선불리 재침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조선 조정에서는 敦寧都正 겸 慶尙道諸陣慰撫使 黃愼, 경상우병사 金應瑞, 도원수 權慄, 도체찰사 李元翼 등의 보고를 수시로 접하며 재침이 과연 일어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본 측의 동태를 살피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상도 위무사 황신과 경상우병사 김응서의 보고가 1차적으로 수집되어야 했다.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겠지만 황신과 김응서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진영의 인원과 접촉하며 일본군 전반의 분위기와 형세, 더 나아가 일본 내부의 사정에 관한 첩보, 정보 등을 조정에 전달했다. 이들이 전달한 내용 중에는 유키나가 측 인물들이 직접 見聞한 것도 있었지만, 傳聞한 첩보가 적지 않아 조선 조정에서조차 이를 의심하며 검토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황신과 김응서가 전달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구·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 어떤 내용이 조선 조정을 推動하여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상도 위무사 황신과 경상우병사 김응서의 보고 내용에 일정한 계열의 차이가 있다거나, 접촉하는 일본 측 인물을 각각 다르게 분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인물의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군과의 소규모 교전에 관한 보고라든가, 유키나가 측에서 제공하는 傳言이 몇 차례 중복되기도 했다. 황신과 김응서는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대면하여 의논하기도 하고, 도체찰사 이원익, 도원수 권율과 연락을 취하면서 정보를 공유했다.⁸⁾ 수집한 일본의 동향과 그로부터 판단한 문제의식, 대응방안이 비슷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럼에도 한쪽은 ‘관찰’과 그 결과로서 ‘所見’을 뒷선에 보고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다른 한쪽은 군사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경상도 최전선 방어를 담당하면서 ‘적’과 소통한다는 측면이 있었기에 양측의 역할과 보고 내용에 전혀 차별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황신의 경우 고니시 유키나가의 정보 제공과 이에 관한 신뢰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판단을 조정에 전달했다. 여기서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유키나가는 ‘적’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한 ‘적’이 조선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반대편에 서서 기요마사를 제거하려는 계책까지 제시하는 현실을 두고 조선 조정에서는 의심과 믿음이 혼란스럽게 교차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조정 회의에서는 유키나가가 조선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를 검토하고 있었다.⁹⁾ 비변사 등에서는 황신이 올린 보고에서 “다만 이 적이(고니시 유키나가) 평소 (가토 기요마사와) 불화하여 서로 혐의를 만들고 있어 그 말이 혹 믿을 만도 하므로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¹⁰⁾고 하는 대목을 취하여 實情에서는 유키나가가 “그렇

7) 李綱錫, 1974, 『壬辰戰亂史』中,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947쪽.

8)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甲寅(23日) “正月十五日成貼慶尙道諸陣慰撫使黃愼狀啓 …… 都體察使亦自慶州向安東 臣則機事急 勢未及往還面議 不得已直到宜寧 與兵使金應瑞 便宜議處 一邊通議于都體察使及都元帥處”

9)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癸巳(2日) “備邊司以大臣意啓曰 伏承下教 聖慮所及 出於尋常 臣等亦有此慮 故今日會議時 亦以見欺爲疑恐行長不無以此爲緩我之計 而實情則有所不然”

10)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癸巳(2日) “黃愼之意亦然 但此賊素有不和搆嫌之迹 意其言之或信 而機

지 않은 점이 있다”(實情則有所不然) 즉, 조선을 속이려 한다거나 방심하게 한다고만 볼 수 없다는 쪽으로 판단을 가져가고 있었다.

이는 전적인 신뢰가 아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선 조정에서는 “항복을 받는 것은 적을 맞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격언을 끌어와서 유키나가와의 관계 역시 조정에 조심을 거듭하여 기만과 기습에 대비할 것을 내부적으로 단속했다.¹¹⁾ 조선 조정에서 믿을 수 있는 범위는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와 경쟁관계에 있고, 서로 불화가 심하기 때문에 유키나가 조선 조정과 손을 잡아 기요마사보다 戰功에서 우위에 오르려 하거나 기요마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점이였다. 그러한 고려의 결과로서 조선 조정과 유키나가 측의 吳越同舟가 가능했던 것이다. 황신은 최전선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관원으로서 조선 조정과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의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吳越同舟 상황에 몇몇 근거를 제시하고 동시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 경상우병사 김응서는 이러한 조정의 판단에 기초하여 적정한 시점에 유키나가와 함께 계책을 시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었다.¹²⁾

그 다음으로 황신에게서 주목해야 할 주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조선 왕자를 매개로 하는 교섭에 관한 대응이였다. 이러한 대응은 주로 유키나가 측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황신은 유키나가 측에 조선 측의 입장을 몇 번이고 확인시켜 주었다. 가토 기요마사 부대의 조선 渡海를 무마하기 위해 유키나가 내놓은 왕자 요청에는, 조선 조정에서는 히데요시가 의도적으로 조선과 通好하지 않으려 일부러 내세운 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¹³⁾ 황신은 일본에서도 조선에서 왕자를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며, 그럼에도 그러한 요구를 한다는 데에 의문을 표시했다.¹⁴⁾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상대방이 거절하게 한 후 이를 전쟁을 일으킬 핑계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였다.

이러한 대응의 결과, 고니시 유키나가는 황신을 통해서 조선 측의 입장을 양해했다. 유키나가 황신에게 전달한 말은 다음과 같다.

나 역시 왕자가 기꺼이 가지 않을 것임을 잘 아는데, 天朝의 황제께서 명을 내리신다면 우리들도 돌아가 국왕에게 스스로 간곡히 고할 것이니, 그대들도 스스로 불가하다고 주장해야하고 또 청정의 협박을 받아 말을 바꾸어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게 해선 안 된다.¹⁵⁾

위의 담화는 심유경이 명 조정에 보고한 傳聞 자료이다. 전문 자료에서조차 유키나가 왕자 조건을 의논하는 협상 상대가 황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이 역시 황신이 왕자를

會之難失也”

11)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癸巳(2日) “備邊司以大臣意啓曰 …… 古語云 受降如受敵 況此事乎 要當察之又察 舟師諸將 十分戒嚴 分護前後 夜間尤防襲擊 以備意外之患”

12)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癸巳(2日) “備邊司以大臣意啓曰 …… 聖教竝諭於金應瑞 觀勢周旋無妨 大概因此 偵探賊情 悉知釜營虛實 尤爲急務 不可徒聽時羅之事 而反不察其眞形也”

13)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甲寅(23日) “臣答曰 …… 但王子一事 非所當言 朝廷亦以爲 此必關白不欲通好於我 而故爲難從之語 以爲構釁之計耳”

14)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甲寅(23日) “臣答曰 …… 不然 日本豈不知王子之決不可去 而必欲以此要我耶 今則唯一戰而已”

15)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丙戌(25日) “我亦深知王子必不肯去 天朝皇帝命下 我等回話國王 自作委曲 爾亦要自作主張不可 又爲清正恐嚇 言語二三 壞我成算”

16)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丙戌(25日) “行長先年 止知恭順天朝 近與朝鮮 萬分委曲 卽如王子之說 訂盟陪臣黃愼云 我亦深知王子必不肯去”

일본에 보내달라는 유키나가 측의 요구에 대응하는 담당자였음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황신이 유키나가 측에 왕자 요구에 관한 조선의 입장을 반복해서 전달했기에 그 결과로 유키나가가 왕자 이외의 조건으로 히데요시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황신과 의논한 내용이라 생각된다.

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키나가가 조선 측에서 왕자를 일본에 보내지 않으리라는 뜻을 이해했고, 명의 황제가 왕자를 보내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자신들도 ‘국왕’인 히데요시에게 명 황제의 명령을 전하겠다는 취지이다. 그 대신 황신에게 당부한 것은 가토 기요마사의 협박에 굴복하여 왕자를 보내겠다고 말을 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유키나가가 황신을 통해 조선에 이후 왕자를 일본에 보낼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지켜달라고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와서 히데요시에게 사례해야 한다는 유키나가의 생각¹⁷⁾과는 정반대의 태도였다.

이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명으로부터도 최종적인 입장이 전달되었다. 명 황제가 조선의 왕자를 절대로 일본으로 들여보낼 수 없다라고 결정한 것이다.¹⁸⁾ 당시 조선에서 受信한 명의 이 입장은 명 황제의 ‘聖旨’ 형태로 내려진 명령이었다. 이는 명이 조선과 동떨어진 채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었다. 조선과 명이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명 조정에서 조선의 왕자를 일본에 보낼 수 없다고 결정지은 것이고, 조선 조정에서 파견된 황신이 유키나가 측에 왕자를 보내라는 조건에 불가하다고 대응하는 가운데 일어난 결과였다. 일본에서 히데요시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는 과정을 지켜본 황신은 왕자를 보내라는 조건을 일종의 역지로 보고 있었다.¹⁹⁾ 요컨대 황신의 생각이 조선 조정, 그리고 명 조정의 입장과 일치되는 선상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 시기 조선 조정의 교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응서의 역할도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황신이 일본 측의 동향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경상우병사 김응서는 경상도 최전선을 방어하면서 유키나가 측과 전선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김응서의 공식적인 보고 체계는 도원수 권율의 狀啓, 혹은 도체찰사 이원익의 장계 등에서 인용되어 조선 조정에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김응서가 직접 조정에 올리는 장계도 적지 않았다.

최전선에서 김태허, 권응수 등 조선 장수들은 일본 진영을 정탐하고 있었다. 경상우병사 김응서 역시 다른 조선 장수와 마찬가지로 조선 측 첩자를 투입하여 부산·동래 일대의 일본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²⁰⁾ 그에 그치지 않고 도원수 권율과 상의 아래 유키나가 측과 임시적인 우호를 맺어 유용한 정보를 얻거나,²¹⁾ 유키나가 측과 전선의 대치상황을 관리, 유지하는 군사협약을 맺어 이를 조선 측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1597년(선조 30) 1월경 도원수 권율이 김응서의 牙兵 宋忠仁을 통해 野鶴, 매 등을 전달하고 가토 기요마사가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에 관하여 정보를 주고받도록 한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다.²²⁾ 또한 김응서는 아병 송충인 등을 보내 고니시 유키

17) 『宣祖實錄』 卷84, 宣祖 30年 正月 辛丑(10日)

18) 『宣祖實錄』 卷86, 宣祖 30年 3月 丙申(6日) “天使曰 調信問於我王子事 何以處之 我對曰 天朝奉聖旨 王子決不可以送”; 『宣祖實錄』 卷86, 宣祖 30年 3月 戊戌(8日); 김경태, 2018, 「정유재란 직전 조선의 정보수집과 재침 대응책」, 『韓日關係史研究』 59, 한일관계사학회, 263쪽.

19) 『宣祖實錄』 卷83, 宣祖 29年 12月 癸未(21日) “上曰 賊之必欲要致王子 何意耶 愼曰 渠輩初擒王子 爲功於日本 終放王子 求恩於我國 王子脫擒之後 一未遣使修謝 故固請王子再至 以逞狂圖耳”

20) 『事大文軌』 卷19, 萬曆 25年 4月 日本國探報賊情

21) 趙慶男, 『亂中雜錄』 3, 丁酉 正月 28日 “都元帥令慶尙右兵使金應瑞 請平行長于咸陽宴 因探清正賊情”(1597년)

나가와 상의하여 가토 기요마사를 해칠 계획을 약속하기도 했다.²³⁾ 그 외 김응서가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일로 유키나가 측과 협의한 것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김응서가 조정에 건의하여 요시라에게 벼슬을 내리도록 한 일도 김응서의 활동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 요시라는 고니시 유키나가 휘하에 소속된 人員으로 파악되고 있었다.²⁴⁾ 요시라는 황신은 물론 김응서에게 유키나가의 말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뿐 아니라 요시라는 때때로 조선 측에 유리한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의 언행을 살펴보면 조선 측으로부터도 말 그대로의 호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대목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노력 중에는 조선 조정에서 명예를 받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요시라는 1597년을 전후하여 조선 측에 벼슬을 간절히 요청했고 1597년 1월경 김응서가 조정에 보고하여 벼슬을 받도록 했다.²⁵⁾ 요시라가 조선으로부터 받은 벼슬은 朝鮮國 僉知中樞府事였다.²⁶⁾ 조선 조정에서는 이 전부터 요시라와 平敬直에게 벼슬을 주어 조선에 유리하게 ‘階梯’로서 활용하려 하였다.²⁷⁾ 조정에서는 ‘反間’을 써서 회유와 기만을 하려던 것이었는데, 김응서가 최전선에서 조정의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요시라가 벼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황신과 김응서는 고니시 유키나가 측과 연락하고 그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재량을 행사하는 조선 조정의 대화창구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 조정에서 볼 때 고니시 유키나가 역시 조선의 ‘적’이었다. 그러나 1597년(선조 30)에 접어들어 재침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과제가 된 만큼, 고니시 유키나가를 다른 적 특히, 조선에 강경책을 주장하는 가토 기요마사와 같은 부류로 볼 수는 없었다. 이는 전란 초기와 비교해 볼 때, 분명히 달라진 지점이었다. 1597년을 전후로 하여 조선 조정은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을 단순히 적대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길 수 없게 된 것이다. 조선 측에서는 고니시 유키나가를 회유의 대상으로 보고 그와 함께 가토 기요마사를 제거할 기회를 노렸다.

2) 재침 방지를 위한 조선 조정의 선제책 모색

선조는 조정 회의에서 유키나가를 ‘行賊’이라 칭하면서도 그에게 ‘足下’라는 敬稱을 쓰는 문서를 작성하여 유키나가를 조선 쪽으로 끌어들이려 했다.²⁸⁾ 선조는 다음과 같이 유키나가를 설득하려는 내용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신의를 중하게 여기고 成敗로 得失을 삼지 않는다. 전에 관백이 새로 즉위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사신을 보내 通信하고 修好했는데 불의에 이런 兵禍가 있었다. 足下가

22) 『宣祖實錄』 卷84, 宣祖 30年 正月 甲寅(23日)

23) 『宣祖實錄』 卷85, 宣祖 30年 2月 辛巳(20日)

24) 『宣祖實錄』 卷83, 宣祖 29年 12月 癸未(21日) “愼曰 …… 要時羅行長幕下小僧 微賤而伶俐者”

25) 『宣祖實錄』 卷84, 宣祖 30年 正月 癸丑(22日) “慶尙道右兵使金應瑞書狀 要時羅請受爵甚懇 臣措備衣冠 依例肅拜後 許授官教”

26) 『宣祖實錄』 卷86, 宣祖 30年 3月 乙卯(25日) “平行長率倭十五名 又爲乘船 向去玉浦洋中 相逢與謂曰 無公文者 舟師達輒射殺云 標文成給 則以憑危急之日 云 故朝鮮國僉知中樞府事要時羅下人 以材木斫伐事 歸到玉浦境 勿禁事 着名以送”

27) 『宣祖實錄』 卷82, 宣祖 29年 11月 己未(27日) “頃者 要時羅卒倭麻堂古羅 亦來應瑞陣中 傳報事情 若欲行間而探問賊中動靜 則以此輩階梯爲之 不患無路 …… 且許要時羅平敬直等官爵 以縻其心”

28) 1592년 전쟁 발발 전후 선조의 일본 인식에 관해서는 방기철, 2023, 「조선 국왕 宣祖의 일본인식」, 『韓日關係史研究』 79, 한일관계사학회, 85~88쪽 참고.

전일에 우리 兵使와 상견하고 通好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중국에 아뢰어 우선 封典을 베풀게 하고 사신을 보내 따라가게 하였는데, 뜻밖에 거절하고 접견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좋지 않은 말을 하니,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등진 것인가, 아니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배신한 것인가? 오직 족하만이 신의를 잊지 않고 이처럼 간곡하여 처음의 뜻을 이루고자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족하의 고견을 알고 있다. 만약 함께 청정을 제거한다면 마땅히 족하와 수호할 것이며, 우리나라와 중국이 어찌 구원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²⁹⁾

선조는 “오직 족하만이 신의를 잊지 않고 있다”, “만약 함께 청정을 제거한다면 마땅히 족하와 修好할 것이다”라고 하며 유키나가의 환심을 사려했다. 선조가 유키나가에 협상을 상정할 때는 ‘足下’라고 칭하고 내부 회의에서는 ‘行賊’이라 하는 것은 분명 이중적인 태도이다. 그럼에도 이 이중적인 태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키나가를 ‘행적’이라고 부르는 쪽보다 ‘족하’라고 부르는 단계에까지 왔다는 지점이다. 일시적이거나 적의 내분으로 그 중 일부와 손을 잡을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선조, 그리고 조선 조정에서는 위와 같이 부분적이거나 고니시 유키나가를 믿어도 좋은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하려 했다. 선조 등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대상은 명의 遊擊 沈惟敬이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심유경을 대체로 불신하고 있었으나, 1596년 명 조정의 副使로서 히데요시를 책봉하러 갔던 경험, 이와 함께 일본 내부의 사정을 관찰한 경험 등을 인정하여 심유경에게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를 반복해서 들으려 했던 것이다.

심유경은 선조와 접견할 때, 가토 기요마사에 관해서 “대단히 흉악하여 강화하기 어려운 자”³⁰⁾, “청정은 극악한 인물이라 실로 상대하기 어려운”³¹⁾ 자, 극히 “악독한 사람”³²⁾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고니시 유키나가, 데라자와 마사나리(寺澤正成)의 면모를 대조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되었다. 심유경은 유키나가와 마사나리가 “忠臣한 사람이라 내 말을 반드시 들어줄 것”³³⁾이라고 했고, 이들이 기요마사에 비해 善人이라고도 했다.³⁴⁾ 선조는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유키나가와 기요마사가 대체로 상충되는 입장을 지니고 있고, 유키나가 측이 조선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며 재침보다 강화를 중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선 조정이 유키나가 측으로부터 가토 기요마사의 渡海 정보를 들은 것이었다. 경상우병사 김응서는 1597년 1월 유키나가 측으로부터 기요마사가 7,0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월 4일 대마도에 도착했으며, 조선 수군이 거제도에 정박했다가 가토가 건너는 날 어떤 방식으로든 차단하기를 노려야 한다는 정보를 받아 조선 조정에 전달했다.³⁵⁾ 유

29)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癸巳(2日) “我國以信義爲重 不以成敗爲得失 前聞關白新立 卽遣使臣 通信修好 不意有此兵禍 足下前日 與兵使相見通好 故我國亦聞于天朝 姑施封典 遣使隨之 又不料其拒而不接 反加惡音 是我國負日本耶 日本負我國耶 唯足下不忘信義 有此惓惓 欲成初志 我國之人 皆知足下之高見 若相與共除清正 則當修好於足下矣 我國與天朝 寧有不救之理哉”

30)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壬戌(1日) “沈使曰 …… 且曰 …… 至於清正亦倭酋 先是領兵寇北方 擄二王子者也 凶惡太甚 難與講好”

31)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戊辰(7日) “使曰 …… 清賊極惡之人 誠難當矣”

32)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戊辰(7日) “使曰 行長正成善人 而清正極惡”

33)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壬戌(1日) “沈使曰 …… 且曰 …… 行長正成倭之二酋 忠信人也 必聽吾言”

34)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戊辰(7日) “使曰 行長正成善人 而清正極惡”

키나가 측에서는 이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를, 조선 수군이 기요마사의 움직임을 견제하면 이전에 기요마사가 히데요시에게 조선 침략에서 승전하고 왕자를 포로로 잡아올 수 있다고 한 장담이 허사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³⁶⁾ 그렇게 되면 유키나가가 일본에서 “조선을攻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 말이 힘을 얻게 되어 유키나가와 조선 양측에 형세가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³⁷⁾

유키나가 측에서 말한 이유라는 것은 가토 기요마사가 곤란해지면 유키나가 자신에게도 득이 되면서 조선에도 함께 이로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조선은 과연 이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조선 조정에서 유키나가의 언행을 두고 파악한 것은 유키나가가 히데요시에게 받을 죄를 면하고 가토 기요마사의 渡海 시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도였다.³⁸⁾ 기요마사의 조선으로 도해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선을 침략해봐야 소용없다는 유키나가의 주장이 일본 내에서 더 설득력을 얻기 때문에 유키나가가 조선의 힘을 빌려 기요마사를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이었다. 유키나가의 강화책이 힘을 받으면 조선이 재침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인데, 조정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유키나가가 제공한 정보를 실행해 볼 만하다고 보았다.

분석은 여기까지 진행되었으나 조선 조정에서는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유키나가의 정보를 어디까지 수용하겠다는 선을 마련하여 기요마사를 치는 쪽도, 그렇다고 유키나가를 아예 불신하는 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이었다. 비변사에서는 “다만 왜적의 말은 교활하여 근거로 삼기가 어렵고 청정이 이미 대마도에 나와 있으니, 비록 계책을 행하려 해도 미치지 못할 듯합니다. 신들이 뒷탈이 있을까 염려되고 또 기회가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³⁹⁾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를 풀어보면, ‘아무리 유키나가라 하더라도 ‘왜적’의 말은 믿기 어려우며, 기요마사를 공격하려 해도 이미 한 박자 늦었기에 반격을 당하기 십상이다. 기회가 아깝기는 하지만 이대로 유키나가의 말을 따르다가는 후환이 있을 것 같다’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나라는 방향의 제시보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선조는 유키나가 측의 通知에 일말의 가능성을 두어 황신을 이순신 측으로 보내 이순신에게 가토 기요마사를 공격 또는 사로잡으라 명령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일본군의 매복을 이유로 선조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⁴⁰⁾

이순신이 선조의 명령에 불복한 결과, 가토 기요마사는 1월 12일부터 15일에 걸쳐 휘하 병력을 도해했다. 결국 조선 수군이 대마도에서 도해하는 기요마사를 요격하지 못한 것이다. 이

35)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庚戌(19日) “慶尙道兵使金應瑞狀啓 今月十一日 要時羅出來 以行長之意進告 清正率七千之軍 初四日已到對馬 順風則不日當渡 …… 近日連有順風 渡海不難 舟師速進泊巨濟島 窺伺清賊渡海之日”

36)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庚戌(19日) “欲速渡海 馳到對馬 若聞朝鮮遮遏之奇 則勢未即渡海 如此則清正所言 朝鮮地方 無人可守 揭一竿可定之言 歸於虛地”

37)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庚戌(19日) “行長 朝鮮攻破 勢未易之言 終歸於的實 關白必罪清正之誤妄 行長得志 和與不和間 勢甚便易 此一良策也”

38)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壬子(21日) “備邊司啓曰 …… 其意似若自免不赦之罪 而牽掣清正 以緩渡海之期也”

39)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壬子(21日) “但倭言 狡詐難憑 而清正已在馬島 則雖欲行計 恐無所及 臣等之慮有後尾 而且期會已晚者 爲此故也”

40) 李廷龜, 『月沙集』卷51, 行狀 中, 秋浦黃公行狀 “正月 以慰諭使南下 時倭賊方謀再犯 而畏舟師 尤忌統制使李舜臣 乃縱反間 …… 上急召備局大臣及公議此事 上問曰 行清兩賊 果如是不乎 …… 上顧公笑曰 欲遣卿行而其如久勞何 公對曰 君父有命 萬一事集 則臣何敢憚勞 即日辭朝 以慰撫諸軍爲名 實令設策擒清賊也 公密諭於舜臣 舜臣答曰 海道艱險 賊必設伏以待 多率舡艦 則賊無不知之理 小其數則反爲所襲 遂不行”

를 두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김응서의 牙兵 송충인에게 “조선의 일은 매양 이렇다. 이런 기회를 잃었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⁴¹⁾라고 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내용은 김응서, 황신의 보고로 몇 차례 중복되어 조선 조정으로 전달되었다.⁴²⁾

조선 조정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놓쳤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선조는 유키나가가 손바닥을 보이듯이 자세히 알려주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며⁴³⁾ “한산도의 장수는 편안히 누워 어떻게 해야할 줄을 몰랐다”⁴⁴⁾라는 말로 이순신에게 잘못을 돌렸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기요마사의 목을 베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 시위하여 기요마사의 기동을 억제하라는 것이었는데 이순신이 이를 행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⁴⁵⁾ 선조 역시 유키나가의 정보를 완전히 확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다가 이순신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조정회의에서는 아예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할지 결정의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이순신이 공격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논의는 다소 책임전가에 가까웠다.

통제사 이순신이 1596년, 1597년 무렵 거제도 일대에서 부산·동래 일대의 연안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대치와 위치 고수 위주의 전술을 사용했으며, 이와 달리 조정에서는 부산 연해를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했던 것이 사실이다.⁴⁶⁾ 趙慶男의 『亂中雜錄』에서는 통제사 이순신이 요시라가 전한 말의 진위를 의심했기 때문에 조선 수군이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서술되었으나,⁴⁷⁾ 그러나 이 시기 조정 역시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宣祖實錄』 史評에서는 유성룡 등이 일본군의 계책에 빠질 것을 염려했고 이에 조정에서 경솔히 움직이지 못했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⁴⁸⁾ 당대와 후대의 文集에서는 이 일을 두고 대부분 유키나가가 이순신을 제거하려는 反間策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록에서는 대부분 ‘반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순신이 억울하게 파직·처벌되었다는 차원에서 결과론적으로 ‘반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에 비해 『宣祖實錄』에서 전하는 1597년 초의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당시 조정에서 유키나가 측과 소통하면서 유키나가가 일본의 재침을 바라지 않는다는 지점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조정의 논의가 결정을 보지 못했고, 선조는 촉박하게 유키나가 측의 通知에 근거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순신은 경솔하게 움직일 수 없었고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好期라고 생각된 기회를 거부했다며 책임을 지운 것이었다.⁴⁹⁾

41) 『宣祖實錄』 卷84, 宣祖 30年 正月 癸丑(22日) “行長謂宋忠仁曰 朝鮮事每每如此 失此機會 可惜可惜”

42) 『宣祖實錄』 卷84, 宣祖 30年 正月 癸丑(22日) 경상도 위무사 황신 書狀; 『宣祖實錄』 卷84, 宣祖 30年 正月 甲寅(23日); 경상도 위무사 황신 狀啓; 『宣祖實錄』 卷84, 宣祖 30年 正月 甲寅(23日) 경사우병사 김응서 장계 등

43) 『宣祖實錄』 卷84, 宣祖 30年 正月 甲寅(23日) “上曰 倭酋行長也 行長使金應瑞 指示可圖清正之計 而柳成龍等 以輕信賊說 恐墜計中 不許輕動 故有是事 如示諸掌而指教之 我國不能爲之 我國誠天下庸劣國也”

44) 『宣祖實錄』 卷84, 宣祖 30年 正月 甲寅(23日) “上曰 …… 閑山之將安臥而不知 何以爲之”

45) 『宣祖實錄』 卷84, 宣祖 30年 正月 甲寅(23日) “上曰 今者舜臣豈望擒誠清正之首哉 只揚舡耀武 沿洄洋路 而終不得爲 誠可歎也”

46) 조선 조정의 적극적인 ‘해로차단전술’에 관해서는 이민웅, 2012, 「조선-일본 전쟁(임진왜란·정유재란)과 군사제도의 변화」, 『한국군사사 7 - 조선후기』 -, 경인문화사, 159-166~168쪽; 김한신, 2018, 「임진왜란기 유성룡의 남부지역 방어계획과 군비강화책(1593.4~1597.7)」, 『歷史學報』 238, 歷史學會, 203~205쪽 참고.

47) 趙慶男, 『亂中雜錄』 3, 丁酉 2月 11日 “要時羅傳告本國曰 清正以單舸渡還 海中遇風波 留泊小嶼數日 我急通于李統制 而統制疑懼不來 坐致誤事云云 朝廷方咎舜臣 虛張大話 欺罔君父 遣都事拿鞠”

48) 『宣祖實錄』 卷84, 宣祖 30年 正月 甲寅(23日) “上曰 倭酋行長也 行長使金應瑞 指示可圖清正之計 而柳成龍等 以輕信賊說 恐墜計中 不許輕動 故有是事 如示諸掌而指教之 我國不能爲之 我國誠天下庸劣國也”

가토를 요격할 기회를 놓친 선조는 일본에 조선의 大臣을 사신으로 보내 재침을 늦추는 방안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선조가 일본에 사신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근거는 명 황제가 사신을 보내 일본과 속히 화친을 진행하라는 명령이었다.⁵⁰⁾ 선조의 이러한 방향은 신하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 신하들은 주로 일본과의 강화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드러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과의 강화에 반대한 인물은 좌의정 김응남이었다. 김응남은 조선은 ‘예의의 나라’이며, 일본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⁵¹⁾ 김응남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일본과의 화친은 성공 가능성이 적고, 화친 논의가 사람의 마음을 해이하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⁵²⁾ 결국 강화의 면면을 따져보았을 때, 화친을 하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었다.⁵³⁾

선조는 좌의정 김응남의 주장을 강하게 받아치며 신하들에게 자신의 논리를 하나씩 전달했다. 사신을 보내야 할 당위에 관해서는 “예의로 말한다면 황신이 간 것은 예의이고 聖旨를 받들어 사신을 보내는 것은 예의가 없다는 것인가?”⁵⁴⁾라고 말하며 명 황제의 성지를 근거로 삼고, 성지를 어길 경우 조선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결과를 어찌할 것인가 반문했다.⁵⁵⁾ 즉 가토 기요마사를 필두로 일본의 침략이 시작될 때, 조선에서 사신을 보내지 않아 맞이한 결과라는 비난과 책임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⁵⁶⁾ 선조는 주로 명 조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난을 우려한 것이었다.

물론 일본과의 강화만이 선조의 최종 대안은 아니었다. 선조는 김응남 등의 사신 파견 반대 주장에 “비변사에서는 이제서야 화친의 논의가 그릇됨을 깨달았단 말인가.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⁵⁷⁾라고 하며 마치 선조 자신이 이전부터 일본과의 대화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처럼 말했다. 사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조의 입장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발언은 앞뒤가 다른 모순이었다. 그러나 사실 선조의 속내는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웠고, 일본에 사신을 보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도 명 측으로부터의 힐책을 면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당장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본이 명의 중재를 받아

49)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丁卯(6日) “傳于金弘微曰 李舜臣拿來時 以宣傳官標信及密符給送拿來 而元均交代後 拿來事言送” 이순신의 처벌에 관해서는 姜永五, 1993, 「李舜臣의 出戰拒否는 抗命이다」,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海軍軍史研究室; 張學根, 1993, 「忠武公 李舜臣의 下獄罪名·戰歿狀況·自殺論·殉國論에 관한 檢討」,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海軍軍史研究室; 방성식, 2015, 「이순신을 구원한 정략의 신구차에 관한 연구 -약포집(藥圃集)을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 24,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참고.

50) 『神宗實錄』卷306, 萬曆 25年 正月 5日 “有旨 覽奏 日本受封恭順可嘉 但釜山餘兵尚未盡撤 既非原議 而兩國之疑終未盡釋 該部便行文與日本國王 撤遣釜兵 以全大信 又行文與朝鮮國王 即差陪臣 以修文好”;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23日 “上御別殿謂曰 奏聞使差遣最好 遣使日本者 大旨矣”

51)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甲寅(23日) “應南曰 中朝以我國 視猶內服者 爲禮義之邦也 今若遣使讎庭 不亦恥乎 不可遣也”

52)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乙丑(4日) “應南曰 …… 自古講和 未能有成者 臣於和事 斷斷無他 只知不克成而已 今者和說 使人心懈怠 士氣沮縮”

53)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甲寅(23日) “成龍應南曰 遣使日本 實無益也 一面以不可遣之意 奏聞無妨”

54)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甲寅(23日) “上怒曰 此則不可不遣 予雖迷惑 豈不知彼賊之爲可讎也 若以禮義云 則黃愼之去 爲禮義 而奉聖旨而遣使者 爲無禮義乎”

55)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甲寅(23日) “上怒曰 …… 若違聖旨而如有不幸 則何以結末 今此遣使 何干義理”

56)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甲寅(23日) “上曰 …… 今如不遣使臣 而清正出來 則人必以爲不遣使之故 何以爲之”

57)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乙丑(4日) “上曰 …… 至於備邊司 今乃覺其和事之誤耶 暫爲未穩”

들여 강화에 응해준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조선 역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경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침 직전 선조의 진정한 속내였던 것이다. “적이 만일 天朝의 약속을 준수한다면 오히려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직 一戰이 있을 뿐”⁵⁸⁾이라는 말이 선조의 복잡한 심리상태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한편으로 일본에 사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다른 한편으로 명 측에 선제공격을 주장한 것⁵⁹⁾ 역시 동일한 심리상태의 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재침을 막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가장 분명한 방안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명에서는 조선의 선제공격 요청까지 들어줄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⁶⁰⁾ 조선에서는 선제공격을 위해 대량의 군량까지 빠른 시일 내에 조선의 내지로 옮겨줄 것을 명 측에 요청했는데, 명 측에서 보았을 때 이는 무리였다.⁶¹⁾ 이미 1597년 2월 이후로 병부상서 석성이 실각했으나,⁶²⁾ 명 조정에서는 조선과의 선제공격보다 임박한 재침에 대비하여 병력을 조선의 요충지에 순차 투입, 주어진 상황에 걸맞게 대응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에 따라 1597년 5월 이후 부총병 양원의 요동군사 3천, 유격 진우충의 延綏 군사 2천여 명이 조선으로 들어온 것이었다.⁶³⁾

한편 가토 기요마사 역시 재침 직전 조선 측에 협상을 제안했다.⁶⁴⁾ 조선 측에서는 사명당 유정을 파견하여 기요마사의 의도를 알아보도록 했다. 그러나 조선 측에서 기요마사와 관계를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요마사가 조선을 침략하여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조선 조정에서는 기요마사가 조선 측에 협상을 시도하는 진의를 파악하고 싶었던 것이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기요마사는 조선에 거칠게 협박했고, 협박에 기초하여 자신만의 강화조건을 제시했다. 조선 측에서는 이를 통해 기요마사의 면면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기요마사의 협상 제안이 ‘조선의 굴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의 조선 접촉

1) 고니시 유키나가의 의도와 주요한 요구

58)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戊辰(7日) “上曰 賊儻遵天朝約束 猶可爲也 若不然 則唯一戰 更無他事 使曰 此大度之言 謹悉之矣”

59) 『宣祖實錄』卷86, 宣祖 30年 3月 甲辰(14日) “上謂國胤曰 慶尙左右道 如西生浦釜山竹島安骨浦等地 賊徒雄據 而賊兵連續出來 其心必有吞噬之計耳 賊之大兵 未盡到之前 我國水兵與天朝先來之兵 協同攻勦 則可以就功矣”

60) 명의 순차적·逐次的인 군사 및 군량 동원과에 관해서는 완밍萬明, 2019, 「정유재란 시기 명 조정의 재정 문제 -은을 중심으로 한 초보적 고찰-」, 『처음 읽는 정유재란 1597』, 푸른역사, 130~134쪽 참조.

61) 『宣祖實錄』卷86, 宣祖 30年 3月 甲辰(14日) “上謂國胤曰 …… 但糧餉難繼 前日所請糧餉 必須水運以來 可以接濟大兵矣 孫軍門既已奏請 已奉聖旨 須急速運來 可以及之 …… 國胤曰 糧餉 孫軍門雖已奉聖旨 大兵之來 未可待此也 大兵來此而一二日絕糧 則必至於飢 不可久住”

62) 『事大文軌』卷19, 萬曆二十五年二月十一日 兵部會議發送兵糧 “欽此 欽遵 通抄到部 除本部尙書石近因論列候旨處分 不敢與議”

63) 『宣祖實錄』卷88, 宣祖 30年 5月 戊戌(8日) 부총병 양원 도착 ; 『宣祖實錄』卷90, 宣祖 30年 7月 戊戌(9日) 유격 진우충 주둔

64) 가토 기요마사가 나름의 협상에 임하게 된 배경, 경위 등은 김문자, 2012, 「임진왜란기의 강화교섭과 加藤清正 -조선왕자의 送還문제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42, 한일관계사학회, 397~398쪽 ; 김경태, 2012, 「임진전쟁 전반기,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동향 -戰功의 위기와 講和交渉으로의 가능성-」, 『大東文化研究』 7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大東文化研究院, 257~259쪽 참고.

李植이 改修한 『宣祖修正實錄』에는 1596년, 1597년 무렵 고니시 유키나가의 행적을 ‘기만’ 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식은 史評 형식으로 “秀吉(히데요시)의 사나움으로써 이미 조선이 자기 네를 업신여겼다고(謂朝鮮侮我) 하며 봉전(封典)을 받지 않았으니” 애초 일본에 和議할 뜻이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했다.⁶⁵⁾ 이식이 이와 같이 서술한 것은 심유경이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진심을 신뢰하며 유키나가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 달리 진실로 화의를 바라고 있다고 한 말⁶⁶⁾을 부정하기 위해서였다.

이식은 조정에서 유키나가를 誅罰해야 함에도 유키나가를 의지하고 믿었던 사실을 잘못된 처사였다고 보았다.⁶⁷⁾ 당시 선조대 조정이 유키나가를 부분적으로 믿었던 근거는 유키나가와 기요마사가 반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식은 가토 기요마사가 도해할 때 유키나가가 기요마사를 공격하라고 통지한 일은 기요마사와 표리가 되어 조선에 해를 가하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기술했다. 기요마사는 일본의 명장 중 우두머리이며, 유키나가는 히데요시의 重臣이니 양측이 반목하고 서로 해칠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애초 둘 사이가 그토록 앙숙이었다면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범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이식의 판단이었다.⁶⁸⁾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과연 타당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언행이 모두 신뢰할 만한 것이었다는 말이 아니다. 유키나가는 명 측에는 조선이 일본과 명의 외교를 방해했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정유재침 이후 히데요시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조선의 인민을 잔인하게 살육한 바 있다. 유키나가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말을 달리 할 수 있었고 생사여탈 권한을 쥔 히데요시에게 절대 복종이 필요한 순간에는 기꺼이 이전의 자기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도 취해야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정유재침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유키나가의 이중성에 치를 떨며 명에 보내는 咨文에서 기요마사는 그저 싸움을 좋아하는 일개 武夫일 뿐이지만, 유키나가는 교활한 간계로 으뜸이라고 평가했다.⁶⁹⁾ 유키나가는 조선을 여러 번 속였고 공순한 척 강화를 맺으려 하다가도 형세가 불리해지면 악독하게 침략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⁷⁰⁾ 정유재침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조선 조정에서는 지금까지 유키나가에 대해 농락당했다고 보았다.⁷¹⁾ 재침 역시 유키나가가 간교한 꾀를 부려 시작한 일이고, 자신이 불리할 때마다 화친을 청하고 있어 조선 조정에서는 명 측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과연 이와 같은 조선 측의 인식을 그대로 수용해도 될까? 유키나가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키나가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1596년, 1597년에 강

65) 『宣祖修正實錄』 卷30, 宣祖 29年 12月 癸亥(1日) “若然則以秀吉之嚴暴 既謂朝鮮侮我 而至封典不受 則是和議大乖也”

66) 『宣祖修正實錄』 卷30, 宣祖 29年 12月 癸亥(1日) “當時 惟敬等謂 行長實與清正異 議和事出於誠心 朝廷亦信之”

67) 『宣祖修正實錄』 卷30, 宣祖 29年 12月 癸亥(1日) “宜責誅行長 而倚任如故 又密行詐謀于我國 去李舜臣 誤元均致敗 實與清正表裏所爲”

68) 『宣祖修正實錄』 卷30, 宣祖 29年 12月 癸亥(1日) “況清正 日本名將之魁 行長以秀吉重臣 豈有潛告我國 伺便殺害之理乎 如是則秀吉安得爲強敵 而加我也”

69) 李廷龜, 『月沙集』 卷23, 咨, 回答徐給事 “仍照賊酋之中 清正雖甚暴桀 而特是好鬪之一夫 狡詐包藏 行長爲最”

70) 李廷龜, 『月沙集』 卷23, 咨, 回答徐給事 “自前小邦及天朝 被瞞於此賊者屢矣 陰懷異圖 主張兇謀 而外示恭順 每以講和撤兵爲言 勢窘則搖尾觀款 以緩我師 候其兵退 乃復逞毒”

71) 李廷龜, 『月沙集』 卷23, 咨, 回答徐給事 “前後背約 幻弄天朝 再動兵戈者 皆此賊之所爲 今者大軍壓壘 天威震動 乃鼓其餘智 通使乞款誠可痛憤”

화를 통해 전쟁을 피하려 한 행적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유재침 이후 조선의 기록에서 고니시 유키나가가를 서술한 내용은 대체로 事後的 평가이며 그 이전의 사실과 그 이면을 들여다 보지 않으려는 손쉬운 惡評이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조선과 일본의 통신 교섭이 진행될 무렵 드러나는 유키나가의 면면을 살펴보자. 강화교섭으로 전쟁을 종식하려는 유키나가의 의도는 1596년 9월 히데요시가 책봉을 받는 시점을 전후하여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히데요시가 교섭 결렬과 조선 재침을 선언한 후⁷²⁾ 유키나가가 히데요시의 결정을 듣고 盛長 등 동료에게 “우리가 4~5년간을 이 일에 주력하여 왔는데, 마침내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 나는 차라리 배를 갈라 죽어버리겠다”고 했다.⁷³⁾ 이 말을 살펴볼 때,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조선을 침략하기는 했으나 그 자신도 간절히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유키나가는 히데요시에게 정해진 기한 안에 성과를 내보여야 했다. 그 성과라는 것은 조선 침략이라는 측면에서도,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히데요시가 보기에 히데요시 자신과 일본에 유리한 성과여야 했다. 유키나가에게 주어진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유키나가가 선호하고 선택하려는 방향은 무력의 행사보다는 강화의 성사였다. 여기에는 사위인 쓰시마 島主 소 요시토시(宗義智)를 통해 파악하게 된 조선과의 교역관계에 관한 이해, 자신의 기독교 신앙 등이 강화교섭으로 향하도록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⁷⁴⁾ 히데요시는 그러한 유키나가에게 기회를 준 셈인데, 만약 강화교섭이 일본에 그다지 유리하게 풀리지 않는다면 유키나가는 히데요시에게 질책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⁷⁵⁾ 일본군이 조선의 남부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거나, 명에서 일본을 불신하여 군사를 조발해서 조선에 투입하는 경우에 유키나가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히데요시의 교섭 결렬 선언은 유키나가에게는 히데요시가 자신에게 던지는 불신임이라는 의미이기도 했고, 동료 장수 사이에서도 가토 등을 위시해서 유키나가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기도 했다. 그 때문에 유키나가가 지난 4~5년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며 배를 갈라 죽어버리겠다고까지 표현한 것이다.

그럼에도 고니시 유키나가는 강화교섭이 성사되지 못한 아쉬움을 품고 그 다음을 준비했다. 유키나가는 조선 측 사신 일행인 朴大根에게 일본과 조선은 반드시 끊어질 리가 없다고 했고, 이번 교섭이 완결되지 못하였다고 해도 후에 언젠가 교섭을 성공할 날이 올 것이라 전망했다.⁷⁶⁾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도 보았는데, 유키나가는 “모름지기 遷延의 계책으로 4~5년을 지탱하면서 일본의 일이 변동되기를 기다리”라 했다.⁷⁷⁾ 유키나가로서는 히데요시

72) 黃愼, 『日本往還日記』 9月 初6日 己亥 “關白大怒曰 天朝則既已遣使冊封 我姑忍耐 而朝鮮則無禮至此 今不可許和 我方再要廝殺 況可議撤兵之事乎”

73) 黃愼, 『日本往還日記』 9月 初6日 己亥 “今夕行長亦對盛長等言 我四五年力主此事 竟無結局 我寧刺腹而死也”

74) 고니시 유키나가는 자신과 소 요시토시 등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소 요시토시를 통해 알게 된 조선과 대화로 소통하려는 의도 등을 황신에게 밝힌 바 있다. 黃愼, 『日本往還日記』 12月 初8日 庚午 “行長又曰 …… 又曰朝鮮每以壬辰之役 歸咎我輩 以爲我輩構出禍端云 殊乖實情 關白有令 我輩不得不從耳 非我首倡此舉也 平義智亦每恨此事 義智是我女婿 故我尤欲致力於通信之事” 물론 유키나가의 말과 속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으나, 유키나가가 임진왜란 발발 이후부터 전쟁보다 교섭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황신에게 한 말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75) 『事大文軌』 卷17, 萬曆二十四年七月初九日 日本冊使渡海奏文 “行長說稱 關白令我們奉請老爺甚勤 而老爺之言如此 我們三四年往來周旋之功 盡歸虛地 且數年供給天朝將士 費了許多錢糧 關白若聞天朝調兵 則我必先死 於此 大槩事勢須當快去 今已整點船隻 聽候分付”

76) 黃愼, 『日本往還日記』 11月 初6日 戊戌 “朝行長謂朴大根曰 日本與朝鮮 必無終絕之理 今行雖不得完了 後當自然成就 須知此意可也”

의 결렬 선언으로 당장 조선과의 전쟁을 종로할 수는 없었지만 그에 단념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제2, 제3의 대안을 찾아 전쟁을 멈추려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려 했다.

조선 측에 왕자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일본 장수’의 입장에서 재침을 최대한 늦추려는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유키나가는 일본에 통신사로 온 황신 등을 만나 히데요시가 “내가 일찍이 조선의 왕자를 놓아 돌려보냈는데, 조선에서는 왕자를 보내어 와서 사례하지 않으니, 이는 나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라”⁷⁸⁾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화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히데요시의 불만을 들어주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유키나가가 파악하기로는 왕자 이외의 조건으로서는 히데요시의 재침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측에서 내세우는 황신만으로는 지위가 높지 않아 인질이 나 사신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명과 조선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⁷⁹⁾

조선 조정으로서는 왕자를 보내라는 요구조건은 애시당초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였다. 황신은 조선 조정의 입장을 대변하며 조선에서 왕자를 보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반복하여 대답했다. 황신이 양해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선 조정이 적정한 직위를 지닌 인물을 매개로 하여 일본과 전쟁 중지의 和約을 맺고 일본이 신의를 지키는 한 그에 부합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황신이 조선 조정의 논의와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1596년 일본으로부터 조선으로 귀환한 후에도 유키나가 측과 교섭선을 유지할 때 중요한 원칙이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히데요시가 내놓는 요구가 대부분 조선 조정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면서도, 조선 측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유지하려 했다. 또한 그 자신이 일본 장수를 대표하여 조선 조정과 교섭하는 담당자가 되려 했다. 히데요시가 교섭의 결렬을 선언했으나 유키나가의 관심은 전쟁이 아니라 講和였다. 물론 히데요시의 신하로서 유키나가는 일본을 위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히데요시가 유키나가는 물론 가족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⁸⁰⁾

그러나 유키나가가 전쟁에 임하는 태도는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는 달랐다. 기요마사는 일본의 우위라는 전제 아래 조선에 왕자를 요구하고, 조선의 臣服을 당연시했다.⁸¹⁾ 말하자면, 조선이 일본에 신복하지 않으니 조선을 침략한다는 것이 기요마사의 ‘논리’였다. 기요마사는 언제고 자신이 나선다면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들일 뿐 아니라 조선의 영역 역시 빼앗아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이며 했다.⁸²⁾

이와 대조적으로 유키나가는 일본 측의 요구를 황신 혹은 김응서 측에 전달하면서도 조선의

77) 黃愼, 『日本往還日記』 11月 初6日 戊戌 “朝行長謂朴大根曰 …… 若不得已相戰 則亦須以計遷延支撐四五年 以待日本事變 則可無患矣云”

78) 黃愼, 『日本往還日記』 12月 初8日 庚午 “行長又曰 …… 但關白之意 只以爲我曾放還朝鮮王子 而朝鮮不肯遣王子來謝 是慢我也云云 王子之外 雖百官齊往 亦不濟事”

79) 『宣祖實錄』 卷84, 宣祖 30年 正月 辛丑(10日) “上親幸南別宮 接見遊擊將軍陳雲鴻 …… 遊擊曰 行長來言 黃陪臣愼 小官不可遣 王子不可不來謝 云”

80) 『宣祖實錄』 卷89, 宣祖 30年 6月 癸酉(14日) “關白即大怒曰 …… 會諸將約束曰 朝鮮每此欺我 吾不忍忿 …… 有山城處 雖盡死 不得不攻破 汝等戮力爲之 如不從我言 當盡殺汝等之妻子云云”

81) 『宣祖實錄』 卷86, 宣祖 30年 3月 庚申(30日) “松雲曾入九華峯 方欲調病 適聞大上官要與相見 罔晝夜下來 十八日入賊中 清正書問曰 六年之前 沈遊擊小西飛 奏大閤殿下曰 放還王子兄弟 則朝鮮國王渡海歸服 而可伸一禮 云 故頃止倭兵矣 國王未渡海則已也 王子兄弟內一人 猶未渡海而致謝 是不亦忘恩乎 是朝鮮國王之僞乎 …… 清正書問曰 若與日本 交隣通信 則五年前將伐大明之時 以朝鮮爲先驅 而亦欲借路矣 竝不從而大逆 是豈交隣通好耶”

82) 『宣祖實錄』 卷85, 宣祖 30年 2月 甲申(23日) “都元帥權慄啓曰 …… 清正初爲受命關白時 決言曰 朝鮮之人 既被日本殘害 戰卒已盡無餘 我率兵復出 則豈特王子來謝乎 地方亦可奪占 吾之處置 豈可與行長同乎”

반응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렇게 유키나가가 조선 측과 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히데요시의 생각이 가토 기요마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히데요시는 자신과 일본의 우위 또는 ‘무위’가 보장될 수 있다면, 명의 중재(명령)를 따라도 상관없다는 쪽이었다. 그 때문에 히데요시는 한 때 휘하의 장수들에게 ‘天朝’의 처분에 따르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다.⁸³⁾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는 이를 근거로 기요마사의 강경 일변도 언행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히데요시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지만, 유키나가는 히데요시가 재침보다는 인력과 물자의 희생이 적은 타협을 오히려 선호할 수 있다는 여지를 읽은 것이다. 이에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에서 조선 측과 교섭하는 재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1597년 재침 이전, 유키나가는 자신의 진영뿐 아니라 다른 일본군 장수의 진영까지 설득하여 조선의 남부지역에서 일본군의 이동 및 활동을 억제하려 했다. 비록 히데요시가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직후였으나, 조선군 측과의 충돌을 가능한 회피하여 후속교섭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려는 계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일본군과 조선군의 교전이 없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조선을 자극하지 않아야 하고, 임시적일지라도 상호불가침 상태를 조성하려 했다.

그 양상을 살펴보면 1597년 초에 加德島 주둔 일본군이 조선군과 교전한 후 일본군 중에 14명이 전사하고, 17명이 총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이 부대를 지휘하는 일본 장수는 유키나가에 대해 부대의 사상자 상황을 알리고 그 때문에 애통하고 참혹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⁸⁴⁾ 유키나가는 그 장수를 위로하기보다 일본군이 먼저 침범한 탓을 지적하며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 불러온 화이다”라고 책망했다.⁸⁵⁾ 포로로 잡아온 조선인 역시 돌려보내라고 하여 조선 측의 반감을 무마하려 했다.

유키나가 측에서 김응서 진영에 전달한 이야기에 따르면 유키나가는 더 적극적으로 조선과의 전쟁을 회피하려 했다. 유키나가는 동료인 일본 장수들에게 조선의 전력을 과장하여 말하면서 특히 조선 수군이 해로에서 일본군의 보급을 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니 경솔하게 조선을 도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⁸⁶⁾ 유키나가 측은 김응서에게 가토 기요마사 등을 위기로 몰아붙이기 위해서는 조선 수군이 전함을 집결시켜 위세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키나가는 죽도와 안골포 등의 일본 장수와 회합하여 당분간 조선을 침범하지 말자는 맹약을 주선하기도 했다. 명 조정으로부터 중재안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거제·칠원·창원·진해·함안·진주·고성·사천의 경계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었다.⁸⁷⁾ 이 때 가토 기요마사가 쉽게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유키나가 측에서는 조선 수군의 기동 규모 등을 제시하며 기요마사의 서약을 유도했다. 기요마사는 “그렇다면 가볍게 침범할 수 없겠다”라고 하며 유키나가의 맹약 주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⁸⁸⁾

83) 『宣祖實錄』卷86, 宣祖 30年 3月 丙申(6日) “接伴使李光庭狀啓 …… 調信曰 …… 清正以爲 似難而不難 若王子不送 則我趕到義州 何難 我曰 沈老爺在日本時 關白令我們 彼天朝處分 汝曰妄動”

84)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甲申(23日) “加德倭將亦來言行長曰 昨日相爲放砲時 我軍官六名卒倭八名 達丸即死 中而不死者十七名 時方臥痛 生死難知 不勝痛慘 云”

85)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甲申(23日) “正成行長等答曰 此汝自取之禍 何事前犯觸怒耶 被擄朝鮮人 斯速還送 云云 則卽爲出送云”

86)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甲申(23日) “慶尙右兵使金應瑞馳報內 …… 又爲密言曰: ‘行長預爲虛張於 諸陣將倭曰 朝鮮今則久在兵革之間 熟諳用兵之術 多備戰艦 取勝未可知也 清正渡海之後 姑縱其兵 輒殺人物 朝鮮因此發憤 今月初八九十日間 舟師丁寧進泊釜山前洋 欲爲遮絕糧道 此後則我等勢將狼狽 豈不憂患哉 …… 各陣十分詳察 斂其管下倭人 使不得恣行 以挑朝鮮之怒’”

87)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甲申(23日) “慶尙右兵使金應瑞馳報內 …… 諸將曰 天朝命令回下間 勿爲 衝突事 誓文着名 入送關白前 不從命 任自進退者 斬之 云 他餘將名 天朝回答間 勿犯巨濟漆原昌原鎭海咸安 晉州固城泗川之境事 亦爲定約”

위의 내용들은 유키나가가 요시라를 보내 김응서에게 전달한 일본군 진영의 동향이다. 전달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표시할 수 있으나, 1597년 초는 유키나가가 전쟁을 회피할 방안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는 시점이었다는 점을 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유키나가는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1차적으로 일본군 안에서 내부단속을 하고 조선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행동을 실행했고, 이를 김응서에게 전달하여 궁극적으로 조선 조정과의 교섭선을 안정시키려 했던 것이다.

실제로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선군 진영과도 긴밀하게 대화하여 전선의 현장에서 임시적인 강화상태를 조성하려 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도원수 권율이 고니시 유키나가와 마찰을 조율하기 위해 소통한 일이 보고되었다. 권율이 고성·곤양 일대에 일본군이 침범한 일을 유키나가에 알렸고, 유키나가는 “그 적은 나의 무리가 아니다. 조선에서 비록 그들을 죽이더라도 내가 가서 구할 리가 없다”라고 대답한 일이었다.⁸⁹⁾

조선의 남부 해안에서는 불가침 약속이 부분적으로 준수되기도 했다. 유키나가와 豐茂守의 선박이 재물을 베려 거제도도 향했을 때 조선 수군이 이를 보고 습격한 일이 있었으나, 포로가 된 일본군사가 “우리는 도적질하는 왜가 아니고 平行長(고니시 유키나가) 관하의 요시라와 같은 왜인으로 공문을 가지고 왔다”고 사정을 말했다.⁹⁰⁾ 이 때 조선군은 무작정 이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沈使가 南中에서 修好하고 있는 이때 경솔히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 행장의 관하라면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결박을 풀어 돌려 보냈다.⁹¹⁾

위의 사례들에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일본군 진영 내부에서는 임시적이라도 조선을 침범하지 말자는 서약을 정하였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군지휘부와도 상호불가침에 관해 양해를 교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조선군 측에서는 유키나가의 보증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일본군을 공격할지 말지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조선군지휘부인 도원수 권율도 사전에 유키나가에게 연락하여 일본군 공격여부를 결정하려 했다. 이는 모두 유키나가와 유격 심유경이 손을 잡고 강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 측에서 유키나가가 명의 심유경과 후속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강경책 위주의 대응만을 고집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 측이 유키나가와 불가침 약속을 일관적으로 이행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 군사를 한 명이라도 더 죽여 전공을 세워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유키나가 측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일이 빈번했다. 비록 그러한 행동이 전체 戰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말이다. 그 때문에 유키나가와 조선군과의 불가침 약속이 조선의 남부 최전선에서 고르게 지켜질 수 없었다. 일본 수군이 유키나가의 약속을 믿고 거제도도 벌목하러 갔다가 불시에 조선 수군의 습격을 받는 일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⁹²⁾ 이미 언급했듯

88)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甲申(23日) “慶尙右兵使金應瑞馳報內 …… 清正初不着名 問曰 朝鮮戰船一船所載之兵幾何 正成等答曰 我因出入者詳聞 則一船容載 櫓軍一百五十名 射手一百名 火砲軍六十名 云 清正答曰 然則不可輕犯 卽爲着”

89)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正月 戊午(27日) “尹斗壽曰 前日權慄通簡於小臣見之 則行長方以講和爲言 而固城昆陽近處 賊徒攔入 此事言於行長 則行長以謂 此賊非吾徒也 朝鮮雖廝殺此賊 我無往救之理 云”

90) 『宣祖實錄』卷86, 宣祖 30年 3月 乙卯(25日) “二十三日 要時羅持行長調信書簡 又爲出來曰 …… 又言曰 平行長管下船一隻十五名 竹島豐茂守管下船一隻三十二名 以材木伐取事 往于巨濟島時 朝鮮舟師 適有相逢 誘引同船之倭十五名 盡奪銃劍 結縛將斬之際 一倭曰 我等非作賊之倭 平行長管下要時羅同類倭人 持公文來到 云”

91) 『宣祖實錄』卷86, 宣祖 30年 3月 乙卯(25日) “則一將云 如此則沈使方在南中 修好之時 輕殺不宜 行長管下則亦不可殺 還爲解縛放送”

92) 『宣祖實錄』卷86, 宣祖 30年 3月 己卯(25日) “平行長率倭十五名 又爲乘船 向去玉浦洋中 …… 朝鮮兵船

이 조선 조정에서는 최전선에서 조선군과 유키나가 측 사이에 모종의 협약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마치 처음부터 몰랐던 것처럼 유키나가와 약속한 김응서를 조사·추궁하는 조치를 취했다.⁹³⁾ 조선 조정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은 재침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교섭과 ‘적의 격퇴’라는 적개심 사이에서 일관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키나가는 일본 진영에서 입장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장수들이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유키나가는 조선 진영과 조선 조정에 공격을 멈추어 달라는 뜻을 전달했으나⁹⁴⁾ 별반 효과를 보지 못했다.⁹⁵⁾ 1597년 4,5월 간 후속교섭의 성과가 없이 시간이 지나갔고, 히데요시의 재침이 임박했다. 유키나가는 반쯤 포기 상태가 되어 유격 심유경에게 稟帖을 보내 조선에서 교전의사가 없는 일본 수군을 공격한 일 때문에 히데요시가 憤激하여 조선을 공격하려 하니 일본을 타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조선이 신의를 어기고 작은 이익을 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⁹⁶⁾ 이 시기의 유키나가에게서는 후속교섭이 성사되지 못한 실망감, 조선 측에 원망, 무력감 등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유키나가는 전쟁 이후의 상황을 대비했다. 심유경 측에 품첩을 보내 일본에서 재침할 때 김응서가 의령을 사수하다 節死하지 않도록 휘하에 두고 보호해 달라고 부탁했다.⁹⁷⁾ 유키나가가 이와 같이 부탁한 것은 최전선에서 김응서와 소통하면서 그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라 볼 수 있으나, 그뿐 아니라 김응서가 미래에 있을 사후 교섭에서 자신의 교섭 상대자(counterpart)로 나설 수 있도록 심유경에게 손을 쓴 것이다. 유키나가는 “방어사가 절사한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강화를 논하게 하면 반드시 시일이 지연될 것”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大事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⁹⁸⁾ 유키나가는 조선과의 전쟁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었으나, 이제 재침이 임박하여 체념해야 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대책을 강구했던 것이다.

2) 요시라의 조선 진영 출입과 후속교섭

1597년을 전후로, 고니시 유키나가와 조선 측과의 후속교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要時羅의

亦爲誘引斫殺 又竹島倭三十二名 招致船上饋酒 佯爲厚待 倭人不知辭色 放意乘船 還來之際 諸船不意放砲 盡殺其倭”；『宣祖實錄』卷87, 宣祖 30年 4月 己卯(19日) “行長書契 …… 朝鮮番船大將幕下 前日與金節度使 堅定約束 故金海陣船安骨浦陣船我陣中五島船 伐取材木於巨濟島中之時 朝鮮番船不問臧否 殺其人取其船 是何道理乎” 등

93) 『宣祖實錄』卷87, 宣祖 30年 4月 己卯(19日) “啓下備邊司 回啓 …… 金應瑞於行長處 巨濟材木私許勿禁事 則已令都體察使推問 得實馳啓矣”

94) 『宣祖實錄』卷86, 宣祖 30年 3月 己卯(25日) “二十三日 要時羅持行長調信書簡 又爲出來曰 …… 斫木零碎 一二隻倭船捕捉 不在勝敗之數 朝鮮諸將 要於己功 每致如此之事 極可怪矣 正成調信 方爲渡海 謀事兩間 及聞此奇 則恐有生事之阻礙 亦必有速禍之歎”

95) 『宣祖實錄』卷87, 宣祖 30年 4月 辛巳(21日) “行長招忠仁曰 …… 今安骨浦柴木之倭人 又爲斫殺 必有衝突之患 如此不關之事 未可止之耶 諸倭將更請出戰 則吾亦無辭而答之 甚可慮也”

96) 『宣祖實錄』卷89, 宣祖 30年 6月 丁丑(18日) “倭將行長稟帖于天朝遊擊將沈老爺臺前 …… 今則加兵運糧 欲決雌雄於朝鮮之意耳 願老爺 勿以罪小國 是朝鮮失信失義 以貪小利耳”

97) 『宣祖實錄』卷89, 宣祖 30年 6月 戊辰(9日) “夫宜寧 全羅道之要路 日本軍兵共力登城 則防禦使必守節戰死 可不惜哉 願老爺 以此理 明言於朝鮮國王 使他將 守城於宜寧 防禦使同處於老爺之幕下 以補將來和睦之事可矣”

98) 『宣祖實錄』卷89, 宣祖 30年 6月 戊辰(9日) “防禦使死節以後 使他人更論和事 則必延留日月耳 願老爺戮力哉 雖遠雖近 必成大事 以快平生之辛勞矣”

행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키나가의 진영에는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 겐소(玄蘇) 등 휘하 인원이 있었고, 유키나가의 사위인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宗義智)와 동료인 데라자와 마사나리(寺澤正成)가 조선과의 후속교섭에 협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유키나가가 사안마다 이들을 전적으로 동원하여 교섭을 시도했던 것은 아니었다. 유키나가는 좀 더 기술적인 화법과 협상능력을 지니고 있는 요시라를 조선 진영으로 파견하여 교섭에 효율을 기하려 했다. 요시라는 유키나가의 생각을 조선 진영에 전달하거나 때로 협상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고니시 유키나가의 對朝鮮 교섭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키나가와 함께 요시라를 우선하여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요시라의 출신은 그 자신의 말에 따르면 대마도 사람으로서 祖父와 父를 거쳐 자신에 이르기까지 약 3대 동안 조선으로부터 받은 물자로 생계를 이었다고 했다.⁹⁹⁾ 이는 조선과 대마도가 교역하는 과정에서 유통된 물자들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요시라는 어린 시절부터 조선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조선을 저버리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조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했다. 요시라가 무리없이 조선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일본인으로서 조선에 ‘친숙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요시라뿐이 아니었다. 주로 대마도를 중심으로 하여 활동하던 일본인들이 대대로 조선과의 교역에 종사하여 조선에 친밀감을 지니고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에서 김응서 진영에 보낸 書契에서는 서계의 필자가 대대로 조선 국왕이 내리는(宣垂) 술잔을 받았고 金帶를 두르고 玉簪을 다는 은택을 입어 “조선의 舊恩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¹⁰⁰⁾ 서계의 필자는 교섭문서를 직접 작성하여 김응서 진영에 전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고니시 유키나가 혹은 소 요시토시¹⁰¹⁾라고 추정된다.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의 야나가와 시게노부 역시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시게노부 역시 조선으로부터 관작을 받아 조선의 은혜를 잊기 어렵다고 했고, 일본과 조선이 오랫동안 교제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조선 조정과의 교섭에 참여했다.¹⁰²⁾ 여기서 일본은 대마도와 과거 큐슈 일대의 호족을 지칭한다. 그는 또 사변이 생겼을 때 조선이 자신을 감싸준다면 조선에 의탁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¹⁰³⁾ 이들의 발언을 말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 전쟁 적대국의 일원으로서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낸 言辭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조선을 잘 모르는 다른 일본 장수와 달리, 대마도를 연원으로 하고 있어 조선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인식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요시라가 처음부터 유키나가의 진영에서 쓰였던 것은 아니었다. 1594~1596년의 자료를 살펴보면 소 요시토시 진영에서 낮은 신분으로 使人의 일을 하며 요시토시의 말을 조선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¹⁰⁴⁾ 이후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신임을 받게 되어 유키나가

99) 『宣祖實錄』 卷73, 宣祖 29年 3月 己巳(2日) “慶尙右道監司徐涪馳啓曰 …… 時羅曰 …… 我亦對馬之人也 食朝鮮之俸 衣朝鮮之布 而自祖至父 生斯長斯 一則安土重遷 一則朝鮮難負也”

100) 『宣祖實錄』 卷86, 宣祖 30年 3月 庚申(30日) “慶尙兵使金應瑞馳報內 倭書契上送 …… 然老朽雖云讎國之人 世世承朝 龍樓鳳殿之下 累受宣垂之酌 至於腰金頂玉之澤 事雖涉於土憲 豈意忽於舊恩乎”

101) 소 요시토시의 구체적인 입장은 『宣祖實錄』 卷56, 宣祖 27年 10月 乙巳(1日) “日本國王 嫉惡義智 故義智求見我國之人 陳其悶迫之情 欲因與我國 如前交隣 云” 참고.

102) 『宣祖實錄』 卷57, 宣祖 27年 11月 壬辰(18日) “平調信稱號倭 招億而言曰 吾受朝鮮厚恩 爵至嘉善大夫 何敢忘朝鮮之恩乎 日本與朝鮮 交隣久矣 別無結怨之事 初非爲朝鮮而起兵”

103) 『宣祖實錄』 卷67, 宣祖 28年 9月 辛巳(12日) “臣伏聞 上年冬間 有人托以行商 見調信則曰 …… 因曰 爾國可托 則事變之日 吾當投之 其奈爾國不能庇吾何 遂流涕云云”

104) 『宣祖實錄』 卷56, 宣祖 27年 10月 乙巳(1日) ; 黃愼, 『日本往還日記』 1596年 10月 27日(庚寅) “夕平義智使要時羅來請曰 通信前過弊島 而適值方在國都 有失接待 今幸來此 不可不請一臨 明日幸望枉顧弊寓”

진영의 통역과 傳言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¹⁰⁵⁾ 뛰어난 조선어 실력과 화술, 조선에 관한 이해 등이 요시라를 발탁한 이유였다고 생각된다.

요시라는 유키나가 진영의 일개 통역이 아니었다. 이미 1594년(선조 27), 유키나가는 소 요시토시, 야나가와 시게노부 등을 대동하고 경상우병사 김응서를 접견하는 자리에 요시라를 참석시켜 조선 조정이 명과 일본의 강화교섭에 참여하는 사안을 함께 논의했다.¹⁰⁶⁾ 요시라가 단순한 통역에 지나지 않았다면 조선에 익숙한 시게노부나 겐소 등에게 통역을 시키면 될 일이었고, 김응서를 만나는 자리에 요시라를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 요시라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유키나가가 그를 양 진영의 수뇌부 회의에 배석시킨 것이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요시라에게 通事이자 교섭자의 역할을 부여했다. 유키나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강화교섭에 관한 사안을 상의한 후 그에 관련하여 조처하고 조선 진영에 상의·통보하는 일을 요시라가 담당했던 것이다.¹⁰⁷⁾ 요시라는 단순히 傳言의 전달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강화교섭이 성사되도록 조선 진영과 사안을 협상하는 재량까지 수행하였다. 그에 따라 때로 조선에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¹⁰⁸⁾ 진심 섞인 조언을 들려주기도 했다.¹⁰⁹⁾

이 과정에서 요시라 자신의 조언이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어야 했다. 요시라는 조선 측에서 강화교섭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자신의 논리를 가다듬었다. 조선에 명망 있는 문신을 요청했고, 정몽주와 신숙주의 사례를 들어 왜 문신을 파견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던 것이다. 정몽주의 경우 明太祖 연간에 직접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들어가 海寇를 제어한 사실, 신숙주는 명 憲宗 시기 일본을 방문하여 조선과 일본의 우호를 닦은 사실을 들었다.¹¹⁰⁾ 그에 비해 황윤길, 김성일, 허성 등은 일본을 방문했으나 일본의 형세를 두루 살피지 않아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¹¹¹⁾ 요시라는 지금의 조선이 정몽주와 신숙주의 사례와 같이 일본의 강하고 약한 형세를 살펴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조선에서 사람을 골라 적합한 문신을 파견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다.¹¹²⁾

주지하다시피 위와 같은 시도는 교섭의 성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1596년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통신사의 지위 등을 문제 삼아 교섭의 결렬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유키나가 진영에서는 조선 조정과 후속교섭을 시도했다. 일본이 곧바로 재침에 착수할 수 없었고, 히데요시 역시 조선을 재침으로 위협하여 교섭이 전개될 여지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유키나가는 막판 협상에서 전쟁을 최대한 늦추거나 재침을 무력화할 수

105) 『宣祖實錄』卷64, 宣祖 28年 6月 丁未(6日) “有一倭子 名要時羅者 親信於平行長 頃日出來宜寧 乃言曰 天使入日本時 朝鮮使臣 亦當偕往云”

106) 趙慶男, 『亂中雜錄』3, 甲午 11月 21日 “行長義智玄蘇竹溪調信 倭通事要時羅外 辟左右聚首于兵使前”

107) 『宣祖實錄』卷63, 宣祖 28年 5月 癸酉(1日)

108) 『宣祖實錄』卷61, 宣祖 28年 3月 甲戌(1日) “賊使要時羅 來于金應瑞陣中者 見其如此 語之曰 好爲耕種 和若不成 則當爲我食 云”

109) 『宣祖實錄』卷73, 宣祖 29年 3月 己巳(2日) “慶尙右道監司徐渚馳啓曰 …… 時羅曰 …… 又曰 …… 行長多方止之 故其事姑寢 幸趁今日 速定大事 不然 則行長之言歸虛 而山東諸將之讒 遂矣 朝鮮若聞此言 必以我爲恐 而皆欲斫斷我頭 然遲延 則必有不及事機之悔 此後始知吾言之出於赤誠也”

110) 『宣祖實錄』卷71, 宣祖 29年 正月 庚寅(23日) “且要時羅 自以己意密言曰 …… 往在洪武中 鄭夢周過海入日本 制海寇者久矣 成化年 申叔舟亦入日本 而兩國修好又久矣”

111) 『宣祖實錄』卷71, 宣祖 29年 正月 庚寅(23日) “且要時羅 自以己意密言曰 …… 如黃 醉酒昏睡 金 徒尙節義 不肯遍察異邦之勢 許 自以在下處己 亦不周審 終致事理之乖當 以有此日”

112) 『宣祖實錄』卷71, 宣祖 29年 正月 庚寅(23日) “且要時羅 自以己意密言曰 …… 貴國若許通和 則信使亦不可不審擇其人 …… 辭命之人 其可不審擇乎”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물론 고니시 유키나가와 그의 진영이 일본인의 정체성을 넘어 조선의 안전을 우선시한 것은 아니었다.

요시라는 유키나가와 함께 조선의 남부 최전선에서 일본 진영을 설득하여 노략 행위를 자제하고 교전을 회피하도록 노력했다. 요시라는 그 자신이 중재자가 되어 일본 진영에서 잡아간 조선 군사를 조선 진영으로 송환하는 역할을 도맡았다.¹¹³⁾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해안에 주둔한 일본 진영 각각을 설득하여 강경한 무력행사를 유보하도록 하고, 조선 진영에도 출입하여 잠정적인 소강상태가 되도록 양측의 행동규칙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요시라는 일본 진영과 조선 진영을 오가며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와 적대관계를 조정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요시라는 일본 진영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감당해야 했다. 일본 진영에서 유키나가와 요시라에 설득되어 조선 노략을 자제하고 진영 외부로 나가 식수, 柴木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할 때 조선 진영에서는 전공을 세우기 위해 이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일본군의 死傷이 종종 발생했다. 일본 장수들은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일본군의 사상 책임을 요시라에게 돌렸다. 심지어 일본 장수들은 격앙되어 요시라를 죽이려 하기까지 했다. 이를 다시 유키나가가 일본 장수들을 달래어 요시라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¹¹⁴⁾

교섭의 성사를 위해 양 진영을 드나들며 적개심, 상호 마찰, 적대행위 등을 조정하는 작업은 양쪽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요시라는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 요시라는 조선 조정으로부터 받은 朝鮮國 僉知中樞府事 직명을 이용해 通文을 발행하여 조선 진영에서 단순 통행하는 일본군을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증빙으로 삼으려 했으나 이는 조선 측에서 무시하면 그만이었다.¹¹⁵⁾

사실 조선 조정에서 요시라에게 벼슬을 내린 것은 요시라를 反間에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요시라는 1597년 1월경 조선 조정에서 첨지중추부사 벼슬을 받은 적이 있었다.¹¹⁶⁾ 조선 조정에서 이와 같이 요시라에게 벼슬을 주어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이점은 요시라가 왕래하는 사이 조선 진영에서 일본 측의 동향을 탐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¹¹⁷⁾ 따라서 요시라에게서 더 이상 반간의 가치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요시라는 조선과 일본 진영을 오가는 비천하고 ‘가증스런’ 첩자일 뿐이었고 그 이상의 인간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은 필요 없었다.

재침을 전후해 조선 측에서 요시라에 내린 평가가 바로 그러한 측면을 단적으로 증명했다. 조선 측에서 보기에 요시라는 조선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일본의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만¹¹⁸⁾ 그의 행적은 종잡을 수 없었다. 요시라는 강화를 맺는다면서 간첩으로서 조선을

113) 『宣祖實錄』 卷86, 宣祖 30年 3月 庚戌(20日)

114) 『宣祖實錄』 卷86, 宣祖 30年 3月 乙卯(25日) “二十三日 要時羅持行長調信書簡 又爲出來曰 …… 其時不得分辨 巨濟一境爲限 今此舟師 殺日本之人 諸倭將聚會論議曰 如此之事 皆以要時羅所爲 將欲斬之 行長諭諸將曰 要時羅生死 實無足惜 姑爲解放 通探兵使道 然後舉事 猶未晚也 諸將咸以爲然 解放 使我出送來稟云”

115) 『宣祖實錄』 卷86, 宣祖 30年 3月 乙卯(25日) “平行長率倭十五名 又爲乘船 向去玉浦洋中 相逢與謂曰 無公文者 舟師逢輒射殺云 標文成給 則以憑危急之日云 故朝鮮國僉知中樞府事要時羅下人 以材木斫伐事 歸到玉浦境 勿禁事 着名以送 則不計通文 朝鮮兵船 亦爲誘引斫殺”

116) 『宣祖實錄』 卷84, 宣祖 30年 正月 癸丑(22日) “慶尙道右兵使金應瑞書狀 要時羅請受爵甚懇 臣措備衣冠 依例肅拜後 許授官敎”

117) 『宣祖實錄』 卷82, 宣祖 29年 11月 己未(27日) “頃者 要時羅卒倭麻堂古羅 亦來應瑞陣中 傳報事情 若欲行間而探問賊中動靜 則以此輩階梯爲之 不患無路”; 『宣祖實錄』 卷87, 宣祖 30年 4月 辛巳(21日) “倭賊被死舟師之後 要時羅使送倭人 出入之時外 我國之人 不得接足於彼陣 以此偵探不易事”

118) 趙慶男, 『亂中雜錄』 3, 甲午 10月 “驛倭要時羅行長管下也 出入慶尙右兵使鎮 輸誠納款 願爲我國人 金應瑞特加厚恤 …… 自後往來無常 歸彼則着其斑服 來此則衣我衣冠 倭中聲息 一一轉報”

그르치는 자였다. 조선의 사대부는 조선 진영을 드나드는 일본의 첩자를 죽이지 않는 것이 의아했다.¹¹⁹⁾ 요시라가 어떤 인물인지 왜 강화를 중재하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볼 시도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조선 측에서는 요시라가 조선 진영을 드나드는 것은 조선의 허실을 염탐하여 일본의 재침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고 단정하는 정도였다.¹²⁰⁾

당대인이 요시라를 이중첩자로 단정하는 주요한 근거가 이순신의 모함과 칠천량 해전의 패전이었다. 조선 측 기록에서는 이를 모두 고니시 유키나가와 요시라가 거짓으로 꾸민 일로 서술했다. 그러나 이순신 모함만 하더라도 자료들 사이에서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른 것이 눈에 띈다. 『宣祖修正實錄』, 『白湖全書』 등에서는 유키나가와 요시라가 조선 조정 내부를 이간한 것이라고 하고,¹²¹⁾ 『澤堂集』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반간계를 기획하여 이순신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라고 했다.¹²²⁾ 전쟁을 두고 히데요시와 유키나가 진영의 입장이 같지 않은 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 인식, 단정한 것이다. 더구나 『선조수정실록』과 『택당집』의 필자가 李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순신 파직 사건과 요시라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유키나가 진영의 가토 기요마사 도해 통지는 유키나가와 기요마사의 갈등을 근거로 하고 있었고, 유키나가가 조선 측과 잠정적으로 ‘협력’하여 전쟁을 늦추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행위였다. 이를 ‘이순신을 모함에 빠뜨리려는 계책’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칠천량 해전 직전에 요시라가 김응서에게 일본 수군의 기동 정보를 흘렸다는 내용 역시 『백호전서』, 『택당집』 등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요시라 등의 음모라고 단정하기보다 유키나가의 창구를 이용한 일본군 진영 전체의 모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597년 7월에 접어들어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전의 조선과 후속교섭을 계속하려는 생각을 일단 접고 일본군의 재침계획에 부응하려 한 것 같다. 시기적으로 보아서도 앞절에서 유키나가가 조선에 책임을 전가하며 재침을 정당화하는 시점과 맞아떨어진다. 이는 아마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직접 督責을 받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침에 적극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요시라는 그러한 유키나가와 步調를 맞춘 것이었다.

정유재침 시기 요시라는 1만여 군사를 지휘하며 곡성 일대에 주둔했다. 일본군에게는 살상과 노략을 금하고 조선의 인민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책을 폈다.¹²³⁾ 요시라는 1598년(선조 31년) 유키나가의 명을 받고 강화를 위해 한성을 방문했다가, 명군에 구류되었다. 이후 유키나가 진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북경에 끌려가 처형되었다.¹²⁴⁾ 처형된 시점은 1598년 말에서 1599년(선조 32)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계를 드나드는 요시라의 양면성과 모호함이 조선 조정에 ‘교활한 첩자’의 표식으로 여겨져 복수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이었다.

119) 趙慶男, 『亂中雜錄』 3, 丁酉 5月 “賊倭要時羅到慶尙右兵使鎮 …… 痛矣哉 要賊前後行間誤我者非一 而如講和之約 構李舜臣等事 尤爲不可赦 至是所爲 亦如此蔑如 而猶不能置之死 許令任意來往 噫 國無人矣”; 鄭慶雲, 『孤臺日錄』 卷3, 戊戌 夏四月 “二十七日辛巳 …… 賊將要時羅以議和到南原巧詐難信 可憎”

120) 李廷龜, 『月沙集』 卷22, 奏, 經理楊鎬被參撤還請留奏 戊戌秋 “又於四月間 行長又遣朱元禮要時羅 陽爲求款之辭 潛遲緩兵之計 藏兇稔惡 探我虛實 以待新兵之到 此乃伊賊故態”

121) 『宣祖修正實錄』 卷31, 宣祖 30年 2月 壬戌(1日); 尹鑄, 『白湖全書』 卷23, 事實, 諸將傳; 尹鑄, 『白湖全書』 卷23, 事實, 統制使李忠武公遺事

122) 李植, 『澤堂集』 別集 卷10, 行狀 下, 統制使贈左議政李公諡狀 “平秀吉因此行間 使行長麾下要時羅密報曰 和事不成 全由清正主戰 方今再來 若令舟師邀擊洋中 止殺此人 則兵自罷矣”

123) 趙慶男, 『亂中雜錄』 3, 丁酉 9月 “賊將要時羅領萬餘兵 自右道來屯谷城 給牌誘民 投入者無窮設禁甚嚴 本縣及南原南西面 無知愚民 爭入受牌”; 趙慶男, 『亂中雜錄』 3, 丁酉 9月 “谷城留賊要時羅 分送伏兵于四道 姑禁殺掠”

124) 『宣祖實錄』 卷121, 宣祖 33年 正月 甲戌(29日)

4. 맺음말

1597년을 전후하여 조선 조정에서는 재침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조선 조정에서는 경상도제진위무사 황신, 경상우병사 김응서를 통해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히데요시가 과연 재침할 것인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으로부터는 유키나가 측 인원이 직접 보고들은 내용, 혹은 傳聞한 내용을 입수하면서 일본 측의 동향을 판단했다.

1597년 초반을 전후하여 조선 조정과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은 서로 적이였음에도 이해관계를 일부 공유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 재침을 주장하는 쪽은 가토 기요마사였고, 이에 반해 고니시 유키나가는 전쟁을 회피하려는 쪽이었다. 조선 측에서는 몇 가지 경로를 통해 유키나가와 강화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재침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과제가 된 만큼, 유키나가를 다른 적과 같은 부류로 볼 수는 없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고니시 유키나가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유효하게 남겨두면서도, 유키나가 측에 연결된 대화의 창구를 차단하지 않았다. 그보다 고니시 유키나가를 회유의 대상으로 보고 그와 함께 가토 기요마사를 제거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잠정적인 협력관계에 들어갔다. 유키나가는 일본 측의 중요한 사정을 조선에 알리거나 민감한 사안에서 양해를 구하며 조선의 신뢰를 얻으려 했다.

그 결과 조선 조정과 유키나가 진영 사이에서 강화에 관한 협의가 얼마간 진척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부전선에서는 유키나가가 도원수 권율, 경상우병사 김응서 등과 소통하며 군사적으로 충돌이 될 소지를 줄였다. 권율 등 조선군지휘부 측에서도 유키나가 진영으로 牙兵 송충인 등을 파견하여 유키나가와 군사적 사안을 조율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의 남부 해안에서는 불가침 약속이 부분적으로 준수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1597년 1월, 유키나가는 조선 측에 가토 기요마사의 도해 정보를 전달했다. 가토 기요마사가 대마도에서 조선의 남해안으로 이동할 것이니 이를 요격하여 재침을 저지하자는 것이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두고 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기회로 본다면 기요마사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였으나, 고니시 유키나가 역시 적의 일원이므로 유키나가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별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선조가 황신을 이순신 진영에 보내 가토를 공격하라 명령했으나 이순신은 일본군의 매복 가능성을 이유로 따르지 않았다. 측박하게 내린 명령에 경솔하게 군사를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얼마간 조선 측에서는 유키나가와 소통을 계속했으나 전공을 세워야 한다는 당위를 버리지 못해 유키나가와의 약속을 무시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 예로 일본 수군이 유키나가가 조선군과 정한 약속을 믿고 거제도도 별목하러 갔다가 조선 수군의 습격을 받는 일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이 때문에 유키나가는 일본 진영에서 그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유키나가는 조선 측에 이를 수차례 항의했으나 별반 효과를 보지 못했다.

1597년 5월 이후 재침이 임박했고 유키나가는 이전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심유경에게 보내는 稟帖에서 재침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조선이 신의를 어기고 작은 이익을 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선을 비난했다. 그럼에도 유키나가는 심유경에게 김응서가 節死하지 않도록 휘하에 두고 보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미래에 있을 사후 교섭에서 김응서와 다시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이 고니시 유키나가 조선과 교섭할 때 중용한 인물이 요시라였다. 요시라는 대마도 사람으로서 그의 祖父 이래로 조선으로부터 몇 가지 혜택을 받았다고 하며 조선에 친숙한 인식을 드러냈다. 요시라는 유키나가 진영에서 通事의 일을 맡았으나 일개 통역일 뿐이 아니었고, 유키나가로부터 조선 진영과 講和를 의논하는 재량까지 부여받았다. 요시라는 정몽주, 신숙주 등의 故事를 근거로 대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가 교섭의 성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요시라는 정유재침 시기 유키나가의 명을 받고 강화를 위해 한성에 방문했다가 북경으로 끌려가 처형되었다.

종합해 보건대, 재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선 조정은 히데요시가 중용하는 장수인 고니시 유키나가와 후속교섭을 진행했다. 앞서 보았듯이 조선 조정과 유키나가 진영은 협력관계를 일부 모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측은 상호 적대하는 입장으로 치밀한 계산을 숨기고 있었다. 조선 조정에서 유키나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은 애초부터 이러한 한계가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시기 조선 조정에서는 후속교섭 말고도 명과의 선제공격이라는 선택지를 쓰기 위해 명 조정을 설득하고 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일본 진영 내 유키나가의 입장, 위상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식수, 柴木을 구하려는 일본군을 공격해서라도 전공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1597년 5월 이후 유키나가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은 여기에서부터였다고 생각된다. 재침을 저지하려 제3의 방안을 찾으려 한 조선 조정의 노력에 주목하면서도 전쟁 상황에서 적개심과 몰이해가 초래하는 비관적인 결과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宣祖實錄』；『宣祖修正實錄』；『神宗實錄』；『事大文軌』

李植, 『澤堂集』；李廷龜, 『月沙集』；尹鑣, 『白湖全書』；鄭慶雲, 『孤臺日錄』；趙慶男, 『亂中雜錄』；黃愼, 『日本往還日記』

2. 논저

姜永五, 1993, 「李舜臣의 出戰拒否는 抗命이다」,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海軍軍史研究室.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7, 『壬辰倭亂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김경태, 2014,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태, 2019, 「정유재란 직전 조선의 정보 수집과 재침 대응책」, 『처음 읽는 정유재란 1597』, 푸른역사.

李焞錫, 1974, 『壬辰戰亂史』中,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李相佰, 1962, 「士禍·黨爭과 倭亂」, 『韓國史 - 近世前期篇-』, 乙酉文化社.

- 완명萬明, 2019, 「정유재란 시기 명 조정의 재정 문제 -은을 중심으로 한 초보적 고찰-」, 『처음 읽는 정유재란 1597』, 푸른역사.
- 이민웅, 2012, 「조선-일본 전쟁(임진왜란·정유재란)과 군사제도의 변화」, 『한국군사사7 -조선후기I-』, 경인문화사.
- 張學根, 1993, 「忠武公 李舜臣의 下獄罪名·戰歿狀況·自殺論·殉國論에 관한 檢討」,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海軍軍史研究室.
- 나카노 히토시中野等, 2019, 「정유재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세 판단과 정책」, 『처음 읽는 정유재란 1597』, 푸른역사.
- 中野等, 2006, 『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 吉川弘文館.

3. 연구논문

- 김경태, 2012, 「임진전쟁 전반기,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동향 -戰功의 위기와 講和交渉으로의 가능성-」, 『大東文化研究』 7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大東文化研究院.
- 김경태, 2018, 「정유재란 직전 조선의 정보수집과 재침 대응책」, 『韓日關係史研究』 59, 한일관계사학회.
- 김문자, 2005, 「임진왜란기 일·명 강화교섭의 파탄에 관한 一考察 -사명당(松雲大師)·加藤清正 간의 회담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8-3,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문자, 2012, 「임진왜란기의 강화교섭과 加藤清正 -조선왕자의 送還문제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42, 한일관계사학회.
- 김한신, 2018, 「임진왜란기 유성룡의 남부지역 방어계획과 군비강화책(1593.4~1597.7)」, 『歷史學報』 238, 歷史學會.
- 방기철, 2023, 「조선 국왕 宣祖의 일본인식」, 『韓日關係史研究』 79, 한일관계사학회.
- 방성석, 2015, 「이순신을 구원한 정탁의 친구차에 관한 연구 -약포집(藥圃集)을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 24,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1597년 전후 조선 조정과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의 교섭 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경태(전남대)

임진전쟁 연구사에서 조선 조정의 움직임(대응 방식)에 대한 평가는 박한 편이었습니다. 정계는 분열되어 있었고 군비는 해이한 상태에서 침략을 당했다는 것이 전제이며, 따라서 관군은 일본군에게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무너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근래에는 정부와 관군의 대응 방식과 (대응이 가능했던) 구조를 설명하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임진전쟁의 전체 시기에서 정유재란 이후의 시기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유재란은 전쟁의 목적, 전쟁 방식, 조선과 명의 대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의 전쟁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정유재란 직전과 직후, 조선 조정의 능동적인 대응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면에서 “고전적인”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연구 경향을 반영,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반간계”를 다루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본 논문은 임진전쟁시 조선의 대응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임진전쟁 학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정유재란 연구가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는 만큼, 해당 연구에서 본 연구와 비슷한 논지, 혹은 다른 논지의 서술이 있는지 확인하여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연구사의 연구사적 정리 : 각주 1, 2번 등에서 인용한 연구가 임진왜란 연구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요. 앞선 (고전적, 전통적) 연구에서 비슷한 서술 경향을 보인다면, 인용 수를 조금 더 늘릴 필요도 있습니다. 정유재란 발발 원인에 대해서도 참고할 최근 연구사의 폭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재란 원인론과 요시라의 반간계에 대한 연구사를 분리하는 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일본 자료 직접 이용 : 각주 7번은 1597년 2월 21일자 히데요시의 주인장입니다. 모리가문서, 시마즈가문서 등 여러 가문의 문서집에 실려 있고, 현시점에서는 열람이 수월한 편입니다. (원본 사진은 국립진주박물관 “정유재란” 도록에 실려 있습니다) 기타지마 만지의 자료집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인용의 방식은 지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히데요시의 주인장이 직접 조선에 전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 조정에서 이러한 히데요시의 생각을 읽었는지는 의문이다.”라는 서술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 “유키나가는 1595년 초부터 黃愼의 교섭 상대자(counterpart)로 등장하기 시작했기에, 1597년경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니시 유키나가는 1594년 11월에 김응서와 만나 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양군 사이의 경계선과 불침 약정이 이때 만들

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지마 아키코, 김문자, 김경태 연구 참조) 이전에도 소 요시토시 등 쓰시마, 나베시마 나오시게 등을 통하여 조선군 측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슬러 오르면 전쟁 이전까지도 올라가야 하겠지만 해당 문장은 다소 한정적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유키나가는 여전히 히데요시의 신하였고 일본의 ‘武威’를 과시하기 위해 참전한 장수였다” 이러한 서술은 수사적인 표현으로는 가능하지만, 임진왜란 원인론까지 감안한다면 가볍게 사용하기 힘든 표현일 수 있습니다. 히데요시의 침략 목적이 ‘무위’였다는 원인론 연구를 인용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 구체적인 교섭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쟁 전체 상황을 조감하는 서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5쪽에서 “그 다음으로 황신에게서 주목해야 할 주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조선 왕자를 매개로 하는 교섭에 관한 대응이었다.”라는 내용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일본이 조선 왕자를 요구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 언급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정유재란 직전 가토 기요마사의 교섭에 대해. 그의 교섭 방식이 상대적으로 거친 편이었고,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는 요구가 앞장 서기는 했으나, 결국 고니시 유키나가 측과 유사한, “누군가를 일본에 보내서 히데요시를 만족시킨다” 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의 굴복”이라는 것도 조선의 의도와 별개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이지 않았을까요.

-고니시 유키나가의 교섭 의도가 분명했고, 교섭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김응서 등과 불가침 약정 등을 맺은 것은 사실입니다. 필자께서는 조선이 그럼에도 일본군을 공격하기도 한 사실을 두고 “조급했던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일리는 있으나 지나치게 기존의 시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다 보니 한쪽 면만을 강조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니시의 교섭에 따랐다면 강화교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며(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침략자인 그리고 다시 침략해 온 일본군을 두고 공격을 가하는 것을 “교섭을 위해 약정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비판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침략자인 히데요시가 제멋대로 조건과 기한을 제시하여 협박을 가하는데, 조선은 이에 양보를 해야만한다는 논리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 요시라에 대한 설명도 전쟁 당시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다 보니 그에 대한 변론 + 조선에 대한 비판 부분이 강조되었고, 논문 전체의 주제를 흐리고 있는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의 톤을 조금 낮추는 편이 어떨까 합니다.

요시라가 살상과 노략을 금했다는 부분도 기록 그대로 신뢰하시는 듯합니다만, 임진왜란 초기부터 일본군이 발급한 “금제”가 결코 문구 그대로 백성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정유재란기 이러한 패문, 방문이 주로 농민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양반 사냥”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2발표

민생단참변의 도화선-송노털사건

발표 : 장우순(성균관대학교)

토론 : 신운용(광복회)

【제2주제】

민생단참변의 도화선-송노털사건

장우순(성균관대)

I. 조작을 위한 창작

중공이 공식적으로 ‘반민생단투쟁’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중공 내 한인 간부, 당원, 유격근거지의 일반 한인들을 민생단원으로 몰아 제거하기 시작한 것은 1933년 4월부터 1935년 12월 말까지의 일이다. 중공 내 특정세력이 종족 간 집단 학살에 가까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민생단원으로 몰 수 있는, 혹은 우길 수 있는 결정적인 두 개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동만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친일단체 민생단이 설립되었다가 해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민생단 설립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송노털사건’¹⁾이라는 여러모로 미심쩍은 사건으로 인해 일부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실제로 민생단으로 조작되어 처형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민생단’이라는 친일단체의 창립과정에서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일부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창립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이 단체가 간도의 한인 자치 혹은 독립을 표방²⁾한 것을 중공의 중국인 간부들이 중공 내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압박하는 약점으로 이용했으며, 이 약점이 반민생단투쟁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가장 큰 구실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민생단의 설립과정과 ‘간도 독립’이라는 구호에 반감을 품고, 이를 약점으로 이용해 한인 간부들을 제거하고 동만주 당조직을 장악하여 왕명의 노선³⁾을 관철하고자 왕명·강생과 만주성위, 동만특위등 만주지역의 모든 중공 조직이 총동원되어 꾸며낸 음모가 바로 송노털사건이었다. 중공은 우선, 송노털사건을 창작하여 당내에 민생단 조직과 민생단원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조작하였고, 이러한 민생단의 존재와 해악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결연한 ‘반민생단투쟁’의 조직과 집행을 강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반민생단투쟁을 집행하여 한인 당·단원, 유격대원, 대중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였다. 즉, 민생단참변이라는 거대한 과오의 잘못 끼워진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송노털사건이었던 것이다.

민생단은 비록 아무런 성과 없이 해산되었지만, 일제를 등에 업고 ‘한인자치’, ‘간도독립’⁴⁾ 등의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중국인들에게 동만 한인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반감을 조장하였

1) ‘노털’이라는 말은 평안도에서 늙은 남자를 가리키는 사투리다. 현대 한국에서 나이 든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민생단 관련 연구 논문이나 연구서에서 보이는 ‘송노톨’은 중국식 표현이다. 당시 한인들이 사용했던 의미와 발음을 따라 ‘송노털’이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러한 사실은 근대 시기 중국인들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인 ‘영토민족주의’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당시 왕명은 소련과 코민테른의 지지로 중공의 권력을 장악하였으므로 소련과 코민테른의 가치를 수호한다고 표방해야만 했고, 때문에 소련을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무장보위’하는 것을 만주성위의 핵심임무로 제기하였다. 또한, 이러한 핵심임무의 실천을 위해 중국인에 의해 영도되는 당조직을 건설하는 것 역시 만주성위의 주요임무로 압박하였다. 민족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고, 수적으로 우세였던 동만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왕명의 이러한 노선을 관철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4) 「간도독립계획-민생단조직, 明春 발회식 거행(1931.12.29)」, 『每日申報』.

고, 한인 공산주의자 일부가 이러한 민생단 설립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중공이 중공 내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민생단참변이 일어나는 데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송노텔 사건’은 동만특위가 송노텔을 고문하여 그와 지인인 한인 당 간부 20여 명을 민생단원으로 몰아 모두 처형한 사건이다.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건은 이후 ‘반민생단투쟁’이 공식적으로 전개되는 핵심 근거가 되었고, 이후 반민생단 투쟁의 모델 및 실행 프로세스로 전형화되었다. 아울러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적인 반민생단 투쟁이 발발하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송노텔 사건’의 경위와 진위여부를 분석하여 민생단참변이 중공 내 일부세력이 조작을 통해 만들어낸 한인 간부들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민생단사건의 도화선 ‘송노텔사건’

‘송노텔사건’은 동만특위에서 처음으로 한인 간부들을 민생단원으로 몰아 처형한 사건이다. 왕명·강생⁵⁾과 동만특위는 이 사건을 이용하여 한인 간부를 민생단으로 몰아 처형하는 전형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 이 사건에 공식적으로 ‘반민생단투쟁’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반민생단투쟁’이라는 중공의 대학살극이 시작된 발화점이며, 중공이 한인 간부를 숙청, 학살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축적하고, ‘민생단 처리 프로세스’⁶⁾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준 매우 중대한 의의가 있는 사건이다. 이후 중공은 이 사건으로 구축된 프로세스에 따라 한인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사건은 민생단참변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단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송노텔 사건’의 발생과 전개

중공 연길현(延吉縣) 노두구(老頭溝) 구위원회(區委員會) 비서였던 ‘송노텔’은 1932년 8월 일본헌병대 노두구분주소 체포되었다가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노두구 유격근거지로 돌아온다. 그의 탈출 과정을 미심쩍게 본 구위는 그를 해임하고 『農民鬭爭』이라는 농민협회 기관지 인쇄소로 보낸 후 조직적인 감시와 조사를 진행하였다. 최현⁷⁾은 1932년

5) 왕명은 1931년 6차 4중 전회에서 코민테른의 지원으로 중공 중앙의 권력을 장악한 인물이다. 그는 중공 중앙을 장악한 이후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노선과 ‘계급주의’ 노선에 근거한 극좌 노선으로 당시 중공의 현안이었던 항일투쟁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특히 1932년 6월 북방회의를 통해 만주지역 당조직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직접 통제하면서 ‘소련의 무장 보위’를 만주지역 조직의 핵심 임무로 강요하였다. 민생단 참변 역시 왕명이 만주 당 조직을 장악하고 그의 노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동만의 한인 공산주의자가 걸림돌이 되자 만주지역 당조직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한인 간부, 당원, 일반대중을 학살한 사건이다. 강생은 왕명이 당권을 장악할 당시 왕명의 편에 서서 주요 당권 경쟁자들을 국민당 첩보기관에 밀고하여 일거에 제거하는 공을 세우고 왕명과 함께 중공 코민테른대표단에서 만주지역을 당 조직과 사업을 농단하였다. 왕명과 강생이 만주지역의 당조직을 ‘왕강지시’라는 비밀지령을 ‘비밀지하당조직’을 통해 내리는 방식으로 통제하였는데, 훗날 강생은 이러한 ‘왕강지시’와 비밀조직에 의한 당조직의 농단이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왕강지시’ 및 만주지역에서의 왕명·강생의 활동을 아는 인물들을 마음의 우환으로 생각했으며, 이러한 인물들을 반당행위나 간첩행위 등을 조작하여 숙청하였다. 민생단참변 역시 이러한 ‘왕강지시’에 의해 시작되었고, 확대되었다.

6) 한인 간부를 민생단원으로 지목하고, 구타, 고문하여 본인에 대한 자백과 중공이 지목한 다른 사람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여 중공이 지목하기만 하면 민생단으로 몰아 처형할 수 있는, 매우 정형화된 한인 간부를 제거하는 처리 방식을 가리킨다.

7) 1907년 함경남도 해산군 출생으로, 1924년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26년 중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1932년 7월 만기출옥한 뒤 연길현 유격대에 들어갔다. 1945년 9월 김일성 등과 함께 귀국하여

10월 16일 그가 이끄는 연길현 항일유격대 분대원 4명이 매봉산에서 유격구를 정찰하다가 일본 헌병 2명을 사살하고, 그들과 동행한 통역 주(朱)모를 체포했는데, 주모는 ‘송노텔’이 헌병대에 포섭되어 민생단을 조직하고, 유격대를 파괴할 목적으로 석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계속 캐물었더니 그놈은 ‘송영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때 송노텔은 연길현 농민협회기관지 『농민투쟁』의 인쇄소 책임일군으로 있었다. 무슨 때문인가고 계속 심문한 즉 그놈은 송노텔이 헌병대 유치장에 갇혀있을 때에 헌병대에 매수되어 ‘민생단’을 조직하여 유격대를 내부로부터 파괴할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헌병대에서 이런 임무를 받을 때 자기가 통역을 썼다고 부언하였다.”⁸⁾

송노텔은 최현의 주장처럼 정말로 민생단 조직 및 유격구 파괴의 임무를 부여받고 유격구로 돌아온 것일까? 보편적 상식의 수준에서 판단할 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최현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통역이 유격구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변절자’를 폭로하는 것이 자신의 신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송노텔이 변절자라면 끝까지 그를 보호해야 나중에 탈출의 기회를 잡거나 다른 방식의 도움(헌병대에 알리는 등의)을 기대할 수 있다. 그가 먼저 송노텔을 붙였다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일본헌병대가 한인의 극단적 배척을 받았으며, 인식과 평판이 극히 부정적이던 민생단을 굳이 다시 조직하도록 사주했을 리 없다는 점이다.⁹⁾ 아울러 일제 최상위 기관의 압박으로 해산된 단체인 민생단을 헌병대의 일개 분주소에서 다시 조직하라고 했다는 것 역시 당시 사회 상황이나 일제의 명령계통에 대한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만약 송노텔이 변절했다면 헌병대원과 통역이 유격근거지 주변의 지형을 굳이 정탐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정탐하지 않아도 노두구위 비서였던 송노텔을 통해 훨씬 상세하게 유격근거지의 정보와 지형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두구위 비서인 송노텔과 같은 정확한 정보원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두구 유격근거지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그것도 두 달이나 지난 후에 정찰대를 파견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송노텔이 변절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앞세워 직접 토벌을 감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일제가 동만주 유격근거지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노두구위 비서 송노텔이 변절하였다면 노두구 유격근거지는 궤멸적으로 파괴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헌병들이 노두구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정찰을 나왔다는 사실과 노두구가 토벌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은 송노텔이 변절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다. 송노텔이 변절했다는 주장에는 송노텔을 밀정으로 몰고, 다시 민생단으로 몰아 사건을 확대시키려는 특정세력¹⁰⁾의 계획된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한편, 최현은 다음과 같이 송노텔 사건을 파벌주의¹¹⁾와도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인 공산주의자를 보는 전형적인 중공의 기본 인식으로 중공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김일성 역시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한 문제였다.

“그놈은 그때 연길현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있던 파벌분자 백창현, 왕우구 당비서 김택규 외 몇몇 사람도

1948년 내무성 산하 제3여단장이 되었고,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인민무력부장을 지냈다. 1980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정치위원·군사위원으로 뽑혀 활동하다가 1982년 4월 사망하였다.

8) 최현, 『혁명의 길에서』 2, 조선노동당출판사, 1963, 81쪽.

9) 일제가 정말로 중공 내 한인 주구 조직을 만들려고 했다면 ‘민생단’과 같은 반감이 있는 명칭이 아닌, 한인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10) 이시기 만주성위와 동만특위를 직접 지휘하던 코민테른대표단의 왕명과 강생을 지칭한다.

11) 중국에서는 ‘파쟁주의’, 북한에서는 ‘종파주의’라고 지칭한다.

‘민생단’이라는 것을 자백하였다. 이때로부터 연길유격대에서도 반‘민생단’투쟁이 시작되었다.”¹²⁾

최현은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파벌주의와 연결시키고 있지만, 사실상 이 시기 중공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에게서 파벌투쟁의 사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은 사실과는 다른 허상이다. 최현이 이처럼 파벌에 대한 ‘사실’이 아닌 ‘허상’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허상을 만들고 유포한 강력한 배경¹³⁾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사실과 다른 허상이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 담론으로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은 중공 내에서 이러한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시킬 능력이 있는 어떤 세력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 허상을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유통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공 중앙 및 만주성위에서 한인의 중공 입당 초기부터 수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파벌에 대한 반대는 이처럼 조작된 사건을 통해 민생단이라는 실재하지 않는 추상의 영역과 연결되었다. 민생단은 이미 해체되었고, 이후 중공의 자체 조사에서도 민생단으로 몰려 희생된 사람 중 민생단으로 확인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¹⁴⁾을 감안한다면 백창현, 김택규 등 이 사건으로 처형당한 20여 명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민생단원도 아니고, 파벌과도 관련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이 송노털에게 포섭당해 민생단원이 되기에는 당시의 객관적, 물리적 조건 역시 충족될 수 없었다. 철저히 감시를 당하던 상황에서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송노털이 이들 모두를 포섭하여 민생단에 가입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현의 회고는 파벌주의자=민생단이라는 1933년 4월 이후 중공의 인식¹⁵⁾과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1930년 중공 입당과 함께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파벌투쟁은 적어도 중공 내에서는 완전히 종식되었다. 입당의 조건으로 파벌의 척결을 요구하는 중공에 입당한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코민테른과 중공이 그토록 경고한 파벌투쟁을 공공연히 벌였을 리 없다. 중공 만주성위의 문서 대부분을 수록한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彙集』에서 한인 공산주의자의 파벌투쟁의 구체적 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는다. 실제로 파벌투쟁이 벌어져 중공이 피해를 입었다면, 중공은 이를 근거로 반민생단투쟁이 아닌 ‘반파벌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제시한 ‘입당 기준’과 한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과시했을 것이다. 중공이 강력하게 반파벌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것은 그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민생단과 파벌주의를 엮어서 숙청의 근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송노털 사건’은 한인을 숙청하고자 계획한 왕명과 강생이 과거 중공이 파벌주의자로 몰았던 한인 공산주의자들에게서 파벌투쟁의 구체적 혐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발견한, 민생단 및 파벌투쟁과 연결하여 숙청의 구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소재였다.

동만특위의 지시¹⁶⁾로 구타와 고문을 당한 송노털은 자신과 동료 20여 명을 민생단원이라 자백하였고, 결국 자신이 지목한 20여 명의 동지와 함께 처형되었다. 이로써 이들은 중공이 동만특위에서 벌인 학살의 첫 번째 피해자들이 되었고, 이들의 희생은 중공이 ‘한인 공산주의자는 민생단인 동시에 파벌주의자’라는 허상의 논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되었다.

12) 최현, 앞의 책, 81쪽.

13) 왕명과 강생을 의미한다.

14) 中共延辺州委黨史資料徵集研究室, 「關於東滿特委開展反“民生團”鬭爭情況的專題報告」, 1984.

15) 「肅清黨內的派爭首領是鞏固黨的首要條件(1933. 4. 30)」, 『東北地區革命歷史文獻彙編』上, 98쪽. 童長榮 발표한 이 문건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인식이 제기되었다. 이후 수많은 동만특위와 만주성위의 문건에서 이와 같은 인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동장영이 착안한 논리가 아닌 왕명과 강생이 개발한 논리일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16) 「韓範思想反省自傳」, 1947, 8.

2. 송노텔 사건의 진위

송노텔사건에 대해 한인권¹⁷⁾은 앞서 살펴본 최현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최현과 한인권의 진술을 비교함으로써 송노텔 사건의 진상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한인권은 송노텔 사건 당시 노두구위의 상급기관인 연길현위의 서기이자 사건을 직접 처리¹⁸⁾한 사람으로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다음은 1947년 한인권이 송노텔 사건에 대해 진술한 내용의 일부이다.

“후에 화룡유격대가 大會洞에서 4명의 일본 헌병을 생포하였다. 화룡현위에서 특위를 통해 이런 내용을 통지하였다. 화룡 유격대가 大會洞에서 노두구 일본군 헌병 4명을 생포하여 고문하니 그들이 “송노텔을 잘 안다. 만약 그를 만나면 살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 특위(동만특위)의 지시가 있어서 구타하며 심문한 결과 민생단 조직 모모를 자백하였는데 20여 명이였다. 현장에 있던 우리 사람들은 모두 들었고 밖으로도 소문이 났다. 강박하여 자백을 하게 하고 그것을 믿게 되었으며 당내에는 아주 큰 동요가 일어났다.”¹⁹⁾

최현과 한인권 두 사람의 진술, 진술의 동기, 진술과 관련한 개인적인 배경 등을 고려하면서 면밀하게 비교한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에 가까운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거짓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진술이 나온 동기를 이해함으로써 사건 전체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체포했다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자. 최현은 헌병대 2명을 사살하고, 통역원 주모를 생포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인권은 헌병대 4명을 화룡유격대에서 생포했다고 주장한다. 만약 정말로 현장에서 최현의 부대가 체포를 하였다면 체포를 주도한 최현은 누구보다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한편, 송노텔 사건이 일어난 노두구위의 상급기관인 연길현위 서기로 당시 이 사건에서 송노텔에 대한 심문 및 처결을 주도한 한인권 역시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한인권의 발언에 주목해보자. 화룡유격대에서 4명의 일본 헌병을 체포하였고, 그 사실은 화룡현위에서 동만특위를 경유하여 한인권에게 전달되었다. 그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동만특위를 통해 이 사실을 통지받았다는 것이다. 만약 한인권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만특위, 혹은 화룡현위에서 사실을 잘못 통보하거나 고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하여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일본 측의 정보자료를 살펴보면, 최현이 일본 헌병을 체포했다는 진술을 사실로 믿기는 매우 어렵다.

“1932년 10월 16일 연길현 細鱗河에서 공비로 인해 노두구 憲兵分駐所 헌병 상등병과 통영 朱

17) 이명은 한범(韓範)이다. 1901년에 출생했으며, 연길현 용신구 조양향에서 살았다. 1928년 혁명활동에 투신하였고, 1930년 3월에 중공에 가입하였다. 1931년 11월에 화룡현위 선전부장, 12월에 연길현위 선전부장이 되었다. 1932년 7월 연길현위 서기가 되었고, 같은 해 12월 동불사 대북동에서 일제에 체포된 후 투항하였다.

18) 한인권은 송노텔에 대한 고문과 자백, 송노텔이 자백한 동료들에 대한 고문, 자백, 처벌 등을 실행한 연길현위의 최고 책임자였다. 유격대 본대장인 최현보다 고급 정보를 훨씬 많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9) 「韓範思想反省自傳」, 1947, 8. 한범이 중공 당국에 자술한 것으로, 일제에 부역했던 전력을 반성하는 의미로 진술하였으므로 거짓을 말할 이유도, 또한 상대방이 관련 문건을 가지고 있는 중공 당국이므로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의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梧 十²⁰⁾명이 피살되었는데 헌병의 사체는 수습되었으나 朱 통역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아울러 가해범도 판명되지 않았다. 南陽坪分署에서 이 사건의 범인 金龍福, 金星女 부부가 함경북도로 도주하여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1934년)4월 15일 특무순사 2명을 파견, 현지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두 사람을 체포하여 취조한 결과 朱 통역의 사체가 연길현 細麟河 大北谷에 묻혀있다고 자백하여 연길 헌병대와 협조하여 수색하여 4일 이를 발견하여 헌병대에 인도하였다.”²¹⁾

일본 당국에서는 1932년 10월 16일 헌병대 노두구분주소의 헌병과 통역을 죽인 범인을 최현이나 그 분대원이 아닌 김용복(金龍福)과 김성녀(金星女)로 특정하였고, 이들을 검거하여 시신까지 수습하였다. 노두구분주소 산하에서 10월 16일, 최현이 언급한 동일한 날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최현이 언급한 헌병대 사살 및 체포 사건과 다른 사건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정말로 최현이 통역을 생포하여 고문하고 처형했다면 일제 정보 당국이나 수사기관은 사실을 잘못 파악하였을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몰았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 두 범인은 함경북도로 피신하였다가 결국 체포되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들의 자백으로 시신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이 범인들을 통해 통역원의 시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범인들의 진술은 사실이며, 이를 기록한 첩보 문서 역시 사실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최현은 과연 누구를 총으로 사살하고, 누구를 생포하여 자백을 들었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일제의 첩보자료가 사실일 경우 그의 주장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1932년 10월 16일에 발생한 헌병대 노두구분주소 헌병들의 피랍 및 피살에 대한 다른 공식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한 거의 유일한 공식문서인 일본 측의 정보는 굳이 배제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유일하게 사건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문서로 볼 수 있다.²²⁾ 따라서 당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은 일본군 헌병과 통역원이 최현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피살되었고, 이들이 검거되어 자백함으로써 시신을 발견할 수 있던 바로 그 사건 하나뿐이다. 따라서 일제 문서와 다른 최현의 ‘헌병을 사살하고 통역을 체포했다’는 주장은 누군가 지어낸 거짓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 헌병을 체포한 과정에 대한 최현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므로 전체 내용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인권이 진술하는 송노텔사건의 내용과 그가 정보를 전달받은 과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화룡현위가 전하는 소식을 동만특위를 거쳐 듣게 되었다고 한다. 즉, 화룡현위에서 정보를 생산하여 동만특위에 전달하였고, 동만특위가 다시 그 정보를 연길현위로 보냈다는 것이다. 한인권이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헌병과 통역 4명을 사살하거나 체포한 사건을 ‘헌병의 자백을 통해 송노텔이 민생단으로 밝혀진 사건’으로 조작할 기회는 연길현위에 도착하기 전에 정보를 취급한 화룡현위와 동만특위 외에는 가질 수 없다. 당시 화룡현위 서기 최상동(崔相東)과 이후의 서기 김일환(金日煥)이 모두 한인이며, 현위 간부 대다수가 한인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들이 ‘민생단’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거짓으로, 그것도 민생단 및 파벌문제로 한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커다란 반감을 가진 중국인 서기가 지휘하는 동만특위에 보고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헌병 4명의 자백을 빙자하여 송노텔을 민생

20) 여기서 十명이라는 표기는 10명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보를 기록한 사람의 오키이거나, 문서의 파손으로 인한 잘못된 해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강덕상 등이 ‘十’ 옆에 부기한 (マ)는 10명이라는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누구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21) 姜德相, 앞의 책 30권, 209쪽(「交戰記錄(1934년)」).

22) 일제 당국은 헌병이 사살되고 통역원이 실종된 사건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 토벌의 명분을 제공할 것이므로 오히려 사실 그대로 알려지는 것이 유리하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일본의 첩보자료는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생산하는 기록으로 거짓으로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단으로 몰 수 있었던 것은 동만특위 뿐이다. 화룡현유격대 → 화룡현위 → 동만특위 → 연길현위로 이어지는 정보 전달체계의 중간에 속해 있어서 정보를 가공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고, 이들 중 가장 막강한 권력의 배경²³⁾을 가지고 있어서 가공한 정보가 거짓인 게 탄로가 나도 탈 없이 무마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동만특위만이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송노텔사건으로 사실상 왕명과 강생이 하달한 ‘한인 간부 제거’라는 명령을 완수하는 확실한 이익²⁴⁾을 확보할 수 있는 세력도 동만특위의 중국인 지도부 말고는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조작이 중국인 간부들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은 타당하다.

한편, 최현은 그가 생포한 주모 통역을 심문하니 송노텔이 현병대로부터 민생단을 조직하여 유격대를 파괴할 사명을 받고 풀려났다고 자백하였는데, 그 통역이 공교롭게도 송노텔이 이런 임무를 부여받을 때 통역을 맡았다고 주장하였다.²⁵⁾ 이에 반해 한인권은 생포된 현병 4명이 송노텔을 민생단으로 지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송노텔이 민생단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해서 송노텔을 민생단원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당시 민생단은 실체가 없었고, 그 밖의 여러 정황상 송노텔이 민생단 단원이라거나 새로이 민생단을 조직할 임무를 맡았다는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두 사람과 일본의 첩보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1932년 10월 16일 현병대 노두구분주소의 현병과 통역원 몇 명이 노두구 근거지 인근에서 피살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주장도 입증 근거가 부족하다. 최현이 직접 체포하였다는 것도, 체포된 현병 혹은 통역이 송노텔을 민생단이라고 자백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현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한인권의 진술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거짓은 동만특위가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허구가 반영된 결과로, 한인권의 혼돈은 동만특위가 사건을 조작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산만함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같은 사건에 대해 동만특위 인물들인 최현과 한인권이 일제의 첩보자료와 극명하게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두 사람의 주장마저 다르다는 것은 이 사건의 정보를 유통하고, 가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매우 급하게 졸속으로 생산되어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중공이 송노텔을 단순히 일제의 간첩으로 몰았다면 그가 현병대에 체포되었다가 무사히 탈출한 일로 인해 일정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왕명과 강생, 그 지시를 받은 동만특위는 송노텔이나 주변 한인 일부를 민생단으로 몰아 제거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전체 한인 공산주의자를 제거 대상으로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던 왕명과 강생은 송노텔에게 단순한 간첩혐의를 씌우는 것은 그 파급력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간첩혐의는 송노텔 한 사람의 처벌에 그치거나, 송노텔을 강제로 자백시키더라도 주변의 몇몇 한인 간부를 간첩단으로 엮어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사건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후

23) 왕명과 강생을 의미한다.

24) 이는 왕명과 강생이 중앙의 이름으로 동만특위에서 관찰하려 했던 핵심 목표였다. ‘민생단참변의 확산 과정을 논의하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5) 이러한 내용은 유일하게 최현의 회고록에만 나온다. 중공당 내에 ‘민생단’이 정말로 존재하였다는 증거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보았으므로 보증할 수 있다는 주장이겠지만, 일제 정보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다른 사건, 즉 金龍福, 金星女가 현병과 통역을 죽인 사건을 기본 테마로 하여 자신이 사실하고, 심문한 것처럼 내용을 덧붙이거나 바꾸어서 창작한 허구에 불과하다. 자신과 연길현 유격대가 현병들을 공격하였는데 그중 살아남은 한 사람이 마침 통역을 하는 한인이었고, 또 마침, 송노텔이 현병대의 지령을 받을 때 통역을 하였으며, 마침, 그 내용이 민생단을 조직하라는 지령이었다는 강변은 지나친 우연의 연속이다. 그리고, 통역원을 심문하는 과정에 유격대 분대장인 최현이 참여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반면, 한인권의 주장처럼 金龍福, 金星女가 화룡현유격대와 관련된 인물들이었을 가능성은 있다.

다시 특정 한인 간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러한 조작과 창작을 처음부터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당해야 하고, 이러한 개별적인 사건들은 전체 한인 공산주의자를 통제하고, 제거하는 구조적 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왕명과 강생은 잘 알고 있었다.

왕명과 강생은 이 ‘송노텔 사건’이라는 해프닝을 동만의 한인 당원들을 제거하고 규율하는 구조적인 틀을 구축하는 핵심요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가진 근본적인 약점, 즉, 한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이면서 동시에 취약한 그 어떤 것과 연결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중공이 줄곧 강조한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파벌주의, 민족주의적 경향과 연결된 약점이었고, 그 약점이 가시적으로 중공에 발각된, 즉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이나 한인 자치운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 ‘민생단’ 문제였다. 창립논의가 시작되던 무렵부터 중국인들에게 한인에 대한 반감을 극단적으로 확산시킨 ‘민생단’은 당시 동만특위나 중공의 간부들이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친일이나 민족주의자로 공격하고, 이를 통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내용과 구조를 가진 담론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고,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재였다. 그리하여 송노텔 사건은 왕명과 강생의 지시로 동만특위의 중국인 간부들에 의해 ‘민생단’과 엮이게 되었고, 이 두 요소는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통제하거나 공격하는 담론체계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즉, 중공의 중국인 지도부의 눈 밖에 나면 송노텔처럼 파벌주의자나 민생단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인식, 그리고 민생단은 일제의 주구이기 때문에 조사나 재판 없이도 고문과 심문을 당할 수 있으며, 심지어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주입함으로써 동만의 한인 혁명세력 모두를 중공의 중국인 지도부를 정점으로 형성된 적색공포의 혼란 속으로 밀어 넣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의제와 언론에 대한 해석권 역시 중국인 간부들이 독점함으로써 동만의 모든 한인 혁명세력, 특히 파벌이나 민생단 설립 논의에 참가했던 한인 간부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능을 장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권능은 동만특위의 중국인 간부가 아닌 그 뒤에 숨어있는 왕명과 강생에게 귀속된 것으로 동만특위는 오직 이들의 허가와 지시를 통해 이 권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송노텔사건에 민생단을 결합시킨 것은 동만특위의 중국인 간부들로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실험²⁶⁾이었다. 만약,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그들의 의도를 관철할 수 있지만, 강렬한 저항이나 반대에 직면한다면 당과 유격대에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인들에 의해 목숨을 잃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왕명과 강생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들 중국인 간부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결행한 것이지만, 만약 중국인 간부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도 이를 구실로 대대적으로 한인을 탄압할 수 있었으므로 실패하더라도 결국은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꽃놀이패와도 같은 묘책이었다. 실험의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일제의 대대적인 토벌이라는 매우 긴장된 시국에서 일제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가졌던 일반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정말로 ‘민생단’이라는 간첩단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수긍하였고, 민생단이 가졌던 친일적, 반동적 성격과 중공이 덧씌운 굴절된 민족 프레임으로 인해 사건이나 상황이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사실을 인지한다 해도 약점²⁷⁾으로

26) 이 실험은 동만특위의 자발적 실험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인이 다수이며, 무력 역시 한인들 손에 있어 유격근거지서 한인들에 의지하여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거는 이러한 모험을 결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아마도 왕명과 임시중앙 강생의 강력한 지시가 없었다면 이러한 실험은 실행될 수 없었다.

인해 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동만주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코민테른과 중공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동만특위나 그 뒤에 있는 코민테른대표단의 지도자가 이러한 흥계를 꾸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중공은 한인 공산주의자가 중공에 보낸 이러한 신뢰를 악용하여 사실을 감추고 사건을 조작하며 학살을 계획하고 자행했던 것이다.

동만특위의 개입 혹은 역할에 대해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한인권이 진술한 것처럼 송노텔에 대한 구타와 고문이 동만특위의 지시로 행해졌다는 점이다. 이미 동만특위에서 민생단이라고 낙인을 찍은 상태에서 구타와 고문의 방식으로 심문을 하라는 지시는 그가 ‘민생단’과 관련되어있음을 규명하라는 지시가 아니다. 이미 민생단으로 확정한 그를 구타, 고문하여 그의 주변 한인 간부들-동만특위에서 지목한 인물들-까지 민생단으로 엮어 넣으라는 지시였을 것이다. 동만특위는 송노텔의 고문 과정에서 사람을 파견하거나 특정 당원을 통해 직접 개입하였을 것이고, 그들이 지목한 한인 간부들을 민생단이라 자백하도록 강박하였을 것이다. 최현은 정상적인 심문 과정을 통해 한인 간부들이 민생단원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지만, 한인권은 분명하게 “강박하여 자백을 하게 하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²⁷⁾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동만특위가 지시를 하여 송노텔을 고문하였고, 그 고문으로 인해 송노텔과 한인 간부들이 민생단으로 조작되었던 것이다. 이런 지시를 한 동만특위의 배후에는 왕명과 강생의 지시와 압박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제 두 사람의 진술을 비교·분석하여 확보한 사건의 조각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자. 첫째, 일본헌병대 노두구분주소의 헌병과 통역이 1932년 10월 16일 한인들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헌병과 통역은 최현이나 연길현 유격대가 아닌 김용복, 김성녀(이들이 화룡현유격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있다)에게 살해되었고, 이들은 범인으로 검거된 후 주모 통역이 유기된 위치를 정확하게 지목하였다. 둘째, 송노텔이 노두구분주소에 잡혀갔다가 풀려난 사건과 노두구분주소의 헌병과 통역이 사망한 사건, 전혀 관련이 없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입수한 동만특위의 중국인 간부들은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엮어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적 틀을 짜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²⁹⁾ 이러한 음모로 두 사건은 결합되어 ‘화룡현위에서 헌병들을 심문한 결과 송노텔을 민생단으로 지목했다’는 하나의 ‘스토리’로 통합, 창작되었고, 이렇게 통합된 송노텔의 민생단 혐의는 연길현위 서기 한인권에게 통보되었다.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커다란 반발 없이 이러한 ‘스토리’를 수용한다면 그것으로 이미 음모는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후의 전개는 구타와 고문, 처형이 논리와 사실을 삼키고, 기획자가 의도한 모든 것이 관철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송노텔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구타하고, 고문하여 자신이 민생단원이라고 자백하게 하고, 다시 동만특위에서 지목한 특정한 인물들을 민생단이라 자백하도록 강박하였다. 그간 민생단사건을 다룬 연구들 대다수가 송노텔과 송노텔의 자백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피해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피해와 희생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는 학살에 불과했고, 왕명·강생의 독단적이고, 굴절된 인식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당한 억울한 희생이었다. 이들을 타당한 근거 없이 중공이나 북한 당국의 논리를 옹호

27) 민생단 및 파벌주의자와 연결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한인 간부들의 경우 절대 공개적으로 반민생단투쟁을 반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28) 「韓範思想反省自傳」, 1947.

29) 동만특위의 이러한 음모의 생산과정에서 왕명·강생의 지시와 쌍방 간 의사소통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후에 설명할 ‘비밀지령’이나 ‘왕강지시’가 이러한 지시와 의사소통의 중요 증거이다.

하기 위해 간첩이나 일제의 주구처럼 인식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조국의 독립과 혁명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합리적인 조사의 과정을 거치거나, 반론권을 주지 않고 송노털을 비롯한 한인 간부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처형하였다. 조사를 하거나 반론권이 보장되면 민생단이라는 혐의가 동만특위 및 왕명·강생의 조작의 산물임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도는 철저하게 봉쇄해야만 했다. 여기까지가 현존하는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송노털 사건의 전모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정황이나 당시 그들의 지위로 볼 때 최현이 아닌 한인권이 진술을 말하고 있을 확률이 높지만, 한인권의 진술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역시 동만특위가 가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사건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진술 과정을 살펴보면 진술의 회차가 거듭될수록 동만특위의 역할에 대한 진술이 점차 약해지다가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당국의 압박 때문이거나³⁰⁾ 한인권 스스로 무언가를 숨겨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그가 ‘송노털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특정 부분의 진술을 선택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도 사건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동만특위의 지시’라는 부분을 반복하였다는 것은 동만특위의 지시가 사건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한인권의 「思想反省自傳」을 보면 여러 차례 특정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축소되거나 특정 부분이 반복되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진술이 당국의 강박에 의해 반복되었든 혹은 자발적 의지로 반복되었든 동만특위의 지시가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같은 해 7월³¹⁾ 노두구 구위 비서 송노털은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었다. 1주일이 조금 넘어 송노털이 돌아왔다. 그리하여 철직시키고 지부로 보냈다. 후에 화룡현 유격대가 大倉洞에서 일본 헌병 4명을 생포하였다. 고문 결과 송노털이 주구라고 하였고, 송노털을 심문한 결과 민생단이라고 자백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죽여버렸다. 이때부터 백색공포가 매우 심해졌다.……현위 서기가 희생되어 내가 서기가 되었고, 당시 반간투쟁과 현위 통신망 건립을 진행하였다.”³²⁾

앞에 소개한 진술 이후에 다시 같은 내용을 진술한 기록이다. 이전의 진술과 달리 고문, 구타를 동만특위가 지시하였다는 것과 동만특위를 통해 송노털사건에 대해 통보받았다는 진술이 사라졌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동만특위의 역할이 사라진 것이다. 앞에서의 추정처럼 이 사건을 조작하는데 동만특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때문에 동만특위의 역할이 밝혀져서는 곤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당국 역시 한인권에게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현의 진술, 한인권의 진술, 일제 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송노털 사건은 동만특위 중국인 간부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각각의 해프닝을 조작을 통해 조합·확대하여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작의 목적은 명확하다. 민생단 논의에 참여하여 중공의 중국인 간부들, 특히 왕명이나 강생의 표적이 된 동만주 한인 공산주의자들

30) 동만특위에서 숙청을 주도한 인물이나 그러한 숙청을 독려, 사주한 코민테른대표단의 인물들이 이후 줄곧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급 당부에서 비리나 과거의 행적을 밝혀서는 곤란한 상황이 적어도 문화혁명이 끝나는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강생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31) 이 당시 한인 관련 기록들은 대부분 음력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7월은 양력 8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2) 「韓範思想反省自傳」, 1947.

을 제거하고, 중국인이 동만주 당권을 장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공의 중국인 간부들은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아킬레스건인 민족주의와 그로 인해 최대 취약점으로 노출된 민생단 문제를 송노털사건에 결합시켰다. 이러한 결합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송노털사건은 한인 간부를 민생단으로 몰아 처리하는 모델로 전형화되었고, 이후 중공은 이 사건을 모델로 어떠한 제지와 저항도 없이 한인 간부, 당원, 유격대원, 대중에 이르기까지 유격근거지의 모든 한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 민생단을 연구한 몇 안 되는 연구자의 한 사람인 金哲 역시 송노털사건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동만특위 중국인 간부들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932년 말 민생단이 이미 해산되었음에도 연길현의 중국공산당이 민생단 분자 한 명을 체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즉, 동장영은 당 조직의 정책 전환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연길현에서 '민생단 분자' 체포 사건을 이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민생단 숙청운동이란 동장영이 동만주에서 중국공산당의 정책 전환을 철저히 하기 위해 이용하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었다.”³³⁾

타당한 주장으로 다른 연구자들이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金哲의 분석에서 ‘북방회의’와 왕명·강생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있다는 점은 논의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한계로 보인다.

III. 송노털 사건의 의미

왕명과 강생은 동만특위를 앞세워 송노털사건과 민생단을 결합, 동만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매우 위험한 실험을 진행했다. 송노털을 비롯한 혁혁한 한인 혁명가 20여 명과 동만특위의 중국인 간부들의 목숨을 담보로 진행된 이 실험에서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동지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고 중국인 지도부가 매설한 여러 장치에 발목을 잡혀³⁴⁾ 그들의 계획대로 끌려다녔으며, 결국 중공의 중국인 지도부가 송노털사건과 민생단을 결합하여 탄생시킨 ‘민생단 담론’이 동만의 혁명운동과 구성원 전체를 집어삼키는 참변을 두 눈을 뜬 채로 방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송노털사건과 민생단을 이용한 중공의 실험은 성공을 거두었다.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못했고, 일부 신진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인 지도부에 협조하여³⁵⁾ 중국인 지도부의 입장과 방침을 몸소 실천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송노털사건과 민생단을 이용한 실험이 성공함으로써 이후 대다수가 민생단원으로 몰리게 될 동만주 한인 공산주의자와 유격구의 한인, 이들이 주축이 되어 전개되던 동만주 항일투쟁과 혁명운동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33) 金 哲, 「东满洲中国共产党组织的党内肃清运动之起因 : 以1930年代初期的“反民生团斗争为中心”, 『政治研究』 54, 九州大学法学部政治研究室, 2007, 155쪽.

34) 특히,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과 민생단과 관련되었다는 의심이 이들의 운신을 제한했다.

35) 최현, 김일성 등과 같이 조공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은 없고, 중공에 가입하면서 공산주의운동에 투신했던 인물 일부는 중공의 중국인 지도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중공의 중국인 간부가 이들을 신뢰한 이유는 다른 한인 공산주의자들과 달리 파벌투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제기되는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파벌문제는 중공과 중국인 간부들의 문제 인식이며,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는 한인 공산주의자 대다수는 이들 중국인 간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다. 다만, 구체적인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 이들 행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최현의 경우 동만특위의 거짓 정보를 유통하고, 일본 헌병대원을 잡았거나 송노털이 민생단원이라 주장하여 중공의 조작 과정에 어느 정도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직면하게 되었다. ‘송노털사건’의 성공적 조작은 동만주 혁명운동과 한인 공산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중공의 중국인 간부들에게도 주관적 오류³⁶⁾에 자신들을 가두도록 하고, 점점 이성을 마비시키게 하는 독소가 되었다. ‘송노털사건’은 동만주 중공 조직과 한인 당원, 유격구의 한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송노털사건은 민생단의 설립·해산과 함께 ‘민생단참변’이라는 거대한 학살극이 시작되는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다. 이 사건을 근거로 동만에서 1933년 봄부터 1935년 12월까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2,000~3,000 명에 달하는 한인 공산주의자 및 대중이 학살되었고, 이들이 근간이었던 동만주 혁명역량은 초토화되었다.

둘째, 이후에 전개된 반민생단투쟁의 전형적인 사례와 규범이 되었다. 즉, 송노털사건처럼 중공의 중국인 지도부가 특정 한인을 지목하면 체포하여 가둔 뒤 민생단원이라고 자백할 때까지 가혹하게 구타, 고문하여 민생단원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다시 중공이 지목한 주변의 특정인을 민생단원이라 자백하도록 재차 구타, 고문하여 주변 인물들까지 민생단으로 몰아 몰살을 시키는 방식을 ‘한인을 민생단으로 몰아 처리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모델로 정착시켰다. 이후 반민생단투쟁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민생단으로 지목된 한인 대다수는 이 모델에 따라 처리되었다.

셋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공의 중국인 지도부는 송노털사건과 민생단을 결합함으로써 이후 한인 간부를 제거하고, 동만당과 유격근거지의 한인 구성원을 통제하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규율로 ‘민생단 담론’을 생산할 수 있었고, 이렇게 생산되어 동만주 당조직을 장악한 민생단 담론은 이후 다른 어떠한 가치에 우선하여 동만주 유격근거지의 한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심지어 생사까지 결정하는 절대적인 인식체계 및 법률체계로 작동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격근거지의 한인 공산주의자들과 한인 대중은 송노털사건으로 인해 일제의 토벌이라는 백색공포와 더불어 중공의 중국인 지도부가 조성한 적색공포에 내몰리기 시작했다. 이 적색공포는 생사가 걸린 원초적인 공포로 언제, 무슨 이유로 민생단으로 몰릴지, 언제 갑자기 죽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과 함께 극대화하여 유격근거지 한인사회에 확산되었다. 이 적색공포는 한인들에게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 중국인 간부들의 지시에 무조건 굴종하고, 창의적, 자발적 활동을 스스로 통제하여 소극적, 피동적 자세로 혁명과 항일투쟁의 임무마저 방기하도록 하였고, 중국에는 소신과 함께 인간성마저 파괴되고 마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게 하였다.³⁷⁾ 이러한 적색공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생존하여 중공에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일부 한인 공산주의자들에게도 가해에 동조하여 동족을 죽이고 목숨을 지켰다는 강한 트라우마가 남았을 것이다. 결국, 동만주 당과 유격근거지에 중국인에 의한 폭압적인 적색 무단통치가 가능한 정치구조를 정착시켰고, 이 시기의 상처는 오늘날까지 치유되지 않고 강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살펴본 것처럼 흔적도 없이 소멸한 ‘민생단’은 중공이 조작한 ‘송노털사건’을 통해 동만의 혁명근거지와 중공 동만특위의 조직 내에서 부활하였다. 뜻밖에도 중공의 ‘송노털사건’ 조작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은 일제였다. 이 사건으로 촉발된 반민생단투쟁으로 인해 일제에 저항하던 동만주 혁명역량이 불과 2년 만에 스스로 완전하게 자멸하였기 때문이다. 일제가 생산한 어떤 문서에서도 이 시기 민생단과 일본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오

36) 이들은 분명 일정 시기 왕명·강생의 지시와 압박으로 수행된 한인 간부의 제거를 혁명활동의 성과라고 인식하는 모순과 혼돈에 빠져있었다.

37) 수많은 한인 당원과 대중이 탈출하고, 유격근거지가 파괴된 것은 일제의 백색공포가 아닌 송노털사건으로 시작된 중공의 적색공포 때문이었다. 유격근거지에서는 이 적색공포가 훨씬 큰 해악을 미쳤다.

히려, 일제는 민생단 사건을 중공당 내부의 자중지란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송노털사건을 시작으로 민생단참변을 통해 일제가 챙긴 이익은 전혀 일제가 계획하지 않은, 중공이 스스로 넘겨준 그야말로 望外(망외)의 소득이었다. 왕명·강생의 강력한 지시와 동만특위의 집행으로 완수된 ‘송노털 민생단 조작사건’은 중국인들의 관점에서도 일제에게 승리를 헌납토록 한 반당적, 반민족적 행위였다.

당시 동만주 유격근거지의 상황에서 왕명·강생과 동만특위의 중국인 지도부가 송노털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한인 당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다. 1932년 10월 당시 동만특위의 중국인 간부들은 그들 스스로 인력을 동원하고, 고문, 처형을 집행할 물리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동만특위 전체 당원 중에서 한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동만특위의 지도부 구성원을 살펴보면 중국인 간부들이 단독으로 이러한 사건을 조작하고 그들이 원하는 흐름으로 대세를 유도하기에는 수적으로나 역량 상으로나 한인 당원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⁸⁾ 동만특위의 중국인 지도부는 그들을 도울 한인들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과거 파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그들이 선호했던, 1930년 이후 중공에 가입하면서 공산주의운동을 시작한 ‘신진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파트너로 끌어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공이 ‘송노털 사건’을 조작하여 ‘반민생단투쟁’을 확대한 과정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중공의 중국인 지도부와 한인 신진 공산주의자들이 결탁하여 구세대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숙청, 참살한 음모라고 해석하는 것도 성립 불가능한 관점은 아니다.³⁹⁾

송노털사건은 어쩌면 송노털 한 개인이 실제로 변절한 사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송노털이 민생단원이거나 송노털이 지목한 사람들이 민생단원이라는 주장은 살펴본 대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만약,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송노털 한 사람이 변절자로 밝혀져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들을 민생단으로 엮은 왕명·강생, 동만특위 등에 의해 사건은 사실과 논리를 떠나 허구와 상상의 세계로 전이되었고, 동만주 유격근거지의 한인들은 허구가 사실을, 상상이 논리를 집어삼키는 역설을 현실 속의 무거운 일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송노털사건을 조작하고, 민생단과 결합시켜 민생단 담론의 생산에 성공한 왕명·강생과 동만특위의 중국인 지도부는 이제 그들이 독점한 ‘민생단 담론’의 해석권을 무기로 ‘한인 당원 제거’라는 그들의 음모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송노털과 연결현위 및 노동구위의 간부들이 희생된 사건을 아직 ‘반민생단투쟁’이라 지칭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까지 ‘반민생단투쟁’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기에는 아직 논리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고, 확실한 자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공은 1933년 4월 무렵까지 이론적, 내용적으로 논리를 보강하고,⁴⁰⁾ 별다른 저항이 없는 한인들의 반응을 확인한 뒤, 1933년 4, 5월 무렵부터 확신을 가지고 ‘반민생단투쟁’이라는 구호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송노털사건처럼 반민생단투쟁에 대한 예상되는 한인들의 격렬한 저항을 제어하기 위해 민생단 담론을 세밀하게 다듬고 ‘실전’을 통해 한인들의 반응을

38) 延辺州委黨史研究室 編, 「中共滿洲省委給中央的報告(1931.4.24)」, 『東北地區革命歷史文獻彙編』 下, 1042-1043쪽. 해당자료의 「滿洲全黨組織統計表(第一表)」를 보면 당시 중국인 동만의 전체 당원은 636명이며, 그중 한인 당원이 96.5%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인 당원은 20명 내외에 그쳤던 셈이다. 한인 당원들을 중국인이 통제해야 한다는 중앙이나 만주성위의 지침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한인 당원들을 활용하여 다른 한인 당원들을 견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민생단참화’도 중국인 지도부가 당과 한인 당원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참극이었다.

39) 중국인 간부가 한인 간부에 대한 밀고와 고문, 한인들에 대한 감시를 사주하고, 신진 한인 당원이 이를 수행하고 중공에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형태로 반민생단투쟁이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0) 이러한 논리의 개발과 보강은 강생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생은 반민생단투쟁 외에도 중공 내에서 수많은 학살과 음모를 주도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송노텔 사건과 다음 장에서 설명할 ‘민생단참변의 확산’ 과정에서 이러한 검증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 반민생단투쟁의 논리가 완성되어 민생단 담론의 구조와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이 시기 송노텔사건으로 유격근거지의 한인들에게 확산된 동요와 공포, 그리고 초보적 형태의 민생단 담론의 유포는 이후 민생단참변을 확산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아울러 송노텔사건은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처리 과정이 이후의 민생단원 지목 및 처리의 기본 프로세스로 정형화되어 ‘중공의 민생단원 지목 및 처리’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약 이 시기 한인들의 반발이나, 이성적인 중공 간부들의 개입 등으로 인해 송노텔사건의 처리가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민생단참변과 같은 비논리적인 무차별적 학살의 모델이나 프로세스는 성립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중국인 당원은 단 한 명도 민생단으로 지목되거나 처벌된 적이 없으므로 이 프로세스는 오직 한인만을 민생단으로 몰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단 중공에 의해 민생단원으로 지목되는 순간 지목당한 사람은 절대로 그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자백을 하지 않으면 악질 민생단분자로 몰아 처형하고, 자백을 하면 민생단원인 것이 탄로 났다며 처형하는 등 어떠한 경우라도 중공이 지목하면 100% 민생단원으로 몰려 학살을 피할 길이 없었다. 중공에 찍히지 않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였다. 이 프로세스에 조사, 수사, 반론, 토론의 과정이 완전히 배제되어있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프로세스가 한인 당원을 사실과 관계없이 민생단으로 나인 찍어 처벌하기 위한 음모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중공의 입장에서 한인 간부 제거에 성공을 100%를 보장하는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이었던 반면, 유격근거지 한인의 입장에서 일단 걸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치명률 100%의 죽음의 덫이였다.

IV. 송노텔사건과 반민생단투쟁의 논리

송노텔사건을 경과하면서 민생단은 반파벌투쟁과 결합하여 한인 간부를 파벌주의 및 일제의 주구와 연결시키는 논리로 다듬어진다. 과거 한인 간부들에 의존하여 전개되었던 동만특위의 활동은 이제 중국인 간부 몇몇이 민생단이라는 살생부를 쥐고 한인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고, 동만주 상황과 지리에 어두운 이들 중국인 간부의 통제는 급격하게 동만주의 혁명 및 항일투쟁의 정세를 몰락으로 내몰았다. 중공이 창작하여 한인 간부를 파벌주의 및 민생단과 연결시킨 이 논리에 대해 동만특위 서기 동장영(童长荣)⁴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⁴²⁾

- ① 파벌 수령들이 분주히 활동하고, 망명하여 굶은일을 하고 생명을 희생하는 것도 모두 혁명사업이나 공·농 군중을 위해서가 아니며, 더군다나 제국주의에 반대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다. 모두 파벌 수령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수령들은 하나 하나가 변

41) 1907년 안휘성(安徽省) 종양현(枞阳县) 출생. 안휘성 청년학생운동에 참여하여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1921년 중국사회주의청년단에 가입하였고, 1925년 봄 안경(安慶)학생 5.30 반제 투쟁을 조직하였다. 그해 7월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 동경제대 제1고에 입학하고, 중공에 가입하였다. 1926년 중공 동경특별지부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다. 1930년 2월 하남성위 서기로 활동하다 9월에 체포되었으나 당의 구출 작전으로 출옥하였다. 1931년 3월 대련시위 서기가 되었고, 11월 동만특위 서기가 되었다. 1934년 3월 21일 왕청현에서 일본군에 피살되었다. 민생단참화의 시작과 1차 확산, 2차 확산의 초기에 동만특위 책임자였다.

42) 「肅清黨內的派爭首領是鞏固黨的首要條件(1933.4.30.)」, 『東北地區革命歷史文獻彙編』上. 98-102쪽.

절하여 제국주의의 밀정이 되었다.⁴³⁾

② 일본 제국주의는 파벌의 수령들이 매우 큰 이용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때문에 만주를 점령한 이후 파벌 영도들을 이용하여 우리 당을 파괴하고, 중·한 양국의 민족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일본 제국주의는 전성호(全成鎬) 등 구 파벌주의 수령을 매수하여 민생단을 조직하고, 呂昌日(음역-편집자)을 매수하여 공개적으로 변절하게 하였으며, 최근에는 봉천에서 파쟁 수령 張光前(음역-편집자)을 매수하여 당조직을 파괴하려 기도하였고, 동만에서 당 밖의 파벌주의 수령과 당내의 파벌주의 수령의 관계를 통하고, 지주, 부농을 이용하여 당내에서 주구 단체 민생단이 발전하도록 하여 당조직과 대중조직을 파괴하고, 유격대와 적색구역을 파괴하려 하였다.⁴⁴⁾

③ 우리는 철저한 각성으로 긴급하게 총동원해야 한다. 지금 파벌 수령에 반대하는 투쟁은 주구와 부농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파벌분자들은 당내에서 부농을 발전시키고, 민생단 주구 단체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파벌의 수령에 반대하고, 그들을 당내에서 제거하는 투쟁은 이미 목전에 주구를 반대하고 당조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되었다.⁴⁵⁾

①은 파벌의 수령, 즉 중공의 한인 간부들이 밀정이라는 의미이고, ②는 파벌 수령이 일제의 사주로 민생단을 발전시켜 중공을 파괴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③은 파벌 수령이 주구단체 민생단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즉 ①과 ② 때문에 파벌 수령을 제거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파벌 수령은 일제의 사주를 받고 민생단을 양성하여 중공을 파괴하므로 이들을 제거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포한 것이다. 민생단 설립·해산과 ‘송노텔사건’을 계기로 중공은 과거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했던 한인 공산주의 파벌, 즉, 조공과 관련된 한인 간부들을 존재하지도 않는 민생단과 엮어서 제거하기 위한 역지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그 정당성과 수월한 실행을 위해 문건과 지령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전 유격근거지의 의제와 정세를 한인 간부의 제거에 집중시켰다. 중공에 가입한 한인 공산주의자, 그것도 과거 조공과 관련을 맺은 간부들은 그제서야 중공이 휘두르는 ‘투쟁’과 ‘학살’의 칼끝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중공 입당 이후 파벌 활동을 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동만특위에서 진행되는 반파벌투쟁은 동만주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인 당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중공이 한인 간부들을 일제의 주구라고 해석한 민생단으로 지목하는 순간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저항과 반론도 제기하기 어려운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반론을 하거나 저항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일제의 주구인 민생단원을 옹호하거나 스스로 민생단원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중공이 반박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공의 중국인 지도부는 어차피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파벌투쟁보다는 반민생단투쟁을 내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파벌주의자=민생단=일제주구라는 논리를 주장하면서 과거의 반파벌투쟁을 반민생단투쟁과 결합시켰다. 이러한 결합에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이 바로 민생단의 설립·해산과 ‘송노텔 사건’이었다.

동만특위 중국인 간부들에 의해 집행된 반민생단투쟁에 대한 기획, 즉, 송노텔사건과 민

43) 앞의 자료, 앞의 책, 99쪽.

44) 앞의 자료, 앞의 책, 101쪽.

45) 앞의 자료, 앞의 책, 101쪽.

생단을 엮어서 동만주 당조직의 한인 지도부를 제거하자는 아이디어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왕명이나 강생일 수도 있고, 동만특위 서기인 동장영이나 다른 중국인 간부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결국 왕명·강생이 받아들여 결정하였고, 때문에 임시중앙, 만주성위, 동만특위 모두가 공유하였다는 점이다. 당시의 권력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상 당시 왕명의 승인과 지시 없이 이러한 대량 학살극은 결코 발생할 수 없었다.

V. 맺음말

살펴보았듯이 송노털사건은 반민생단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명분을 위해 만들어진 조작된 사건이었다. 중공 내 특정세력은 이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민생단조직과 민생단원이 당내에 존재하므로 반민생단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이들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왕명과 강생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으로 그들이 의도한 ‘한인 간부를 제거하고 중국인으로 대체하는’ 공작을 이 사건을 이용하여 시작할 수 있었다.

송노털사건의 조작 과정을 통해서 본 중공의 행적은 당시 중공에 이러한 음모나 농단을 적발하거나 거를 수 있는 건강한 자정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한 사람에게 의해 통제되는 전제주의적 독재체제가 성립될 수 있는 전근대적 단계의 조직 논리와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공 내 중국인 간부들이 마르크스나 레닌이 제기한 민족이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한족의 이익을 위해 소수민족의 이익이나 존재를 배제하는 극단적 성격의 종족 이기주의에 경사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한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유격근거지를 개척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에게 투쟁과 활동의 기반을 제공한 동지이자 역량의 근원인 한인을 집단학살할 수 있는 정서는 결코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자의 신념과 양립할 수 없다. 단지, 종족 이기주의에 경도된 한족의 종족 정서에 불과할 뿐이다.

송노털사건의 전개 과정을 확인하면서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분열 역시 감지할 수 있었다. 한인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동만 당조직의 구조상 한인의 도움 없이 사건의 조작이나 처형 등의 집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반드시 중국인 간부들에게는 한인 조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열은 한인 공산주의자의 중공 가입을 기점으로 그 이전부터 활동을 하며 조선공산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중공에 가입하면서 공산주의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중공의 영향을 서로 다른 층위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중공은 그저 중국의 공산당으로 조선공산당이 다시 설립되면 다시 떠나야 할 잠시 머무르는 곳에 불과했다면, 후자의 경우 현재 유일하게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권력으로 그들이 전개하는 공산주의운동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험이나 이론의 측면에서 중공 간부들을 뛰어넘는 역량을 가진 한인 간부들의 경우 중공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중공을 통해 공산주의를 접하고 이론을 학습한 신진 당원들의 경우 중공의 영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공이 한인 간부들을 파벌주의자, 민족주의자, 민생단분자라고 몰아세울 때 중공의 논리에 조금이라도 더 귀를 기울였을 가능성이 있다. 김일성과 같은 신진 당원들이 한인 간부들의 파벌을 극도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민생단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었던 것 역시 이들이 중공의 논리에 보다 밀착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송노털사건은 중공에 가입한 동만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파멸적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그러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공과 코민테른을 신뢰하고 있었고, 이러한 신뢰는 자신과 유격근거지의 한인들을 중공이 매설한 죽음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토론문】

장우순 선생의 <민생단참변의 도화선-송노털사건>에 대한 토론문

신운용(광복회학술연구원 교수)

이번에 발표된 장우순선생의 이 논문은 민생단 참변을 이해하는 데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생단 참변에 대해 김성호와 한홍구의 박사학위논문으로 그 대략적 실상이 밝혀진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논문은 주로

장우순 선생님의 이 논문은 그동안 학계에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은 ‘송노털사건’을 민생단 참변의 도화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은 민생단 참변을 초래한 중국공산당의 논리가 이미 송노털사건에서 성형되었고, 이는 한인 2000-3000명이 희생된 민생단 참변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주장은 대단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민생단 참변은 바로 왕명·강생과 만주성위, 동만특위 등 만주지역의 모든 중공 조직이 총동원되어 꾸며낸 음모라는 것이 장선생님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를 증명할 근거 즉 왕명·강생과 만주성위, 동만특위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료가 있다면 기왕의 연구와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글쓴이의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 (1) 송노털사건과 민생단 참변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하동찬은 1933년 6월 박두만이 만주성위 순시원 반영유를 살해한 사건을 민생단 참변 계기로 보고, 이명영은 1934년 9월 결성된 간도협조회가 파벌대립을 이용하는 공작에서 민생단참변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조선혁명 지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학계는 동만특위 내의 파벌적 죄경노선에서 찾고 있다.

1932년 10월 16일 송노털사건 이전 중공의 반민생단 활동 전개

- (2) 민생단을 친일단체로만 규정할 수 있는가? -특별자치구 설립 청원운동, 간도자위단훈련소 설치(일제의 종용으로 해산)

민생단의 창립 목적이 간도가 조선의 영토를 역설함과, 간독의 독립을 중외에 성명함에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일제의 허락없이 단체의 구성은 불가능하였다. 이점에서 단순히 친일단체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물론 1932년 4월 일제의 간도파견 출동은 민생단의 친일화를 촉진시켰다.

- (3) 조선공산당의 간도 소속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4) 민생단 참변이 중공공산당과 조선공산당의 노선투쟁의 결과인가?

아니면, 중공의 한인에 대한 통제술의 일환이었나?

- (5) 민생단 참변에 많은 한인과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가담한 이유는?

- (6) 중국공산당이 죽인 한인들에 대한 성향 분석을 한 연구는 있는가?
- (7) 조선공산당을 견제하기 위해 민생단 참변을 일으켰다면 굳이 2000-3000명의 한인을 죽일 필요가 있었는가? 다른 이유는 없는가?
- (8) 민생단 참변에 대한 간도 한인의 저항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9) 민생단 참변에 대한 임시정부 등 민족주의세력의 인식은 무엇이였는가?
- (10) 김일성과 민생단의 관계는?
북한학계 외 이재화, 와다하루키 이종석, 스칼리피노, 등은 민생단 참변에 김일성이 저항했다고 주장
- (11) 민생단이 연길의 자치(독립)운동의 배경이었다는 김성호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 (12) 희생자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는가?
- (13) 중국공산당을 포함한 중국인들의 간도 한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은?
길림성 장춘현 삼정보에서 발생한 萬寶山事件(1931년 7월 1일) 등이 민생단 참변에 끼친 영향은?
- (14) 한인 공산주의자의 간도에 대한 인식은?
- (15) 민생단 참변을 주도한 본토 출신의 董長榮(동장릉) 曹亞範(차오야판) 鍾子雲(징쯔윈) 李學忠(리취정)에 대한 연구(이들의 한인 공산주의자에 대한 인식) 필요?
- (16) “두번째 용단이 있었다면 그것은 南湖頭會議 후 새 師團을 조직하면서 민생단 보따리를 불살라 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일성 『세기와 더불어』(로동당출판사, 1992, 177쪽). “민생단 보따리를 불살라버렸다”는 것은 김일성이 민생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닐까?
- (17) 동만 한인 공산주의자의 극좌적 성향(한인민족주의+한국공산주의자들의 파쟁=민생단(일제 주구) 민생단 참변의 원인이 되었다는 김성호의 주장 (『연변지구 조선민족 항일혁명 투쟁의 특수성 연구』)은 타당한가?

1933년 12월 7일에 만주당, 단성위의 ‘한국민중에게 알리는 글’

일본강도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중한민중의 연합을 분열함으로써 ‘간도한인자치구’의 침략목적을 달성하고 중한민중의 반일민족혁명운동을 파괴하려 한다. 민생단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산세조직이고 파쟁분자는 민생단의 조수이며 반혁명적 조직이다.

파쟁영수들은 ‘중국인은 낙후하여 혁명하지 않고 한인은 혁명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한인소베트’를 설립할 것을 제출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어떤 목적인가? 그 목적은 바로 중한민주의 친밀한 형제동맹을 파괴하는데 있다. ‘중국인은 낙후하여 혁명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한인들로 하여금 중국인과 연합하지 말고 고립되게 하는 것이다. 고립은 바로 역량이 없게 되는 바, 이는 일본제국주의에게 제일 유리한 것이다. 때문에 ‘중국인은 낙후하여 혁명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파쟁영수들이 주구의 작용을 다하여 중한민족의 친밀한 형제연맹을 파괴하고 한인들로 하여금 고립되게 하는 대음모이다. ‘한인소베트에 중국인의 몫이 없다’는 것은 일본강도의 ‘간도한인자치지구’ 정책을 실행하는 대음모로서 절대로 민족자결이 아니다.⁴⁶⁾

이상. 감사합니다.

46)中共滿洲省委, 「團省委關於反對日本強盜奸細民生團及派爭告韓國民衆書」(1933.12.7.), 『東北文件匯集』(甲6), 1989. 5. 제133-137쪽.

제3발표

마한의 ‘해양력’과 매킨더의 ‘심장지대’를 통해 본 러일전쟁

발표 :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이종국(동국대학교)

【제3주제】

마한의 '해양력'과 매킨더의 '심장지대'를 통해 본 러일전쟁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별지.

【토론문】

마한의 '해양력'과 매킨더의 '심장지대'를 통해 본 러일전쟁에 대한 토론문

이종국(동국대)

별지.

【한일관계사학회 보고사항】

1. 2023년 학회 월례발표회

- 제205회 월례발표회 : 2023년 3월 11일(토)
- 제206회 월례발표회 : 2023년 4월 8일(토)
- 제207회 월례발표회 : 2023년 5월 13일(토)

2. 《한일관계사연구》 79집 발간

- 《한일관계사연구》 79집이 2023년 2월 28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80집의 투고가 2023년 3월 31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81집은 2023년 5월 31일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논문 게재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논문을 투고하실 때 심사비 6만원(심사자 3인)을 입금해 주시면, 심사비 입금확인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논문게재비는 일반논문 10만원, 연구비수혜논문 30만원입니다.

3. 회비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선생님들이 납부하시는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 | | |
|--------|-------------------------|---------------------|
| [종신회비] | • 일반회원 : 40만원(15년限) | • 기관회원 : 50만원(15년限) |
| [연회비] | • 일반회원 : 3만원 | • 기관회원 : 4만원 |
| | • 학생회원(학부생&석사과정생) : 1만원 | |

[계좌번호] 국민은행 217002-04-676500 <예금주> 조인희